



대한민국 광복군총사령부성립기념식을 마치고 자링빈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총사령부 직원, 중국내빈들 (충청 1940. 9. 17)  
독립기념관 소장



조선의 군사복식

## 대한민국 광복군 大韓民國光復軍

나라 밖에서 뭉친 구국의 열정

1940년 충칭<sup>重慶</sup>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백범 김구를 주석으로 하여 9월 17일에 대한민국 광복군총사령부를 창설하였다. 광복군의 주축은 만주지역에서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고, 군관학교 출신의 한인청년들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자제들도 참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주로 병사들의 모집과 교육훈련 및 선전활동을 하다가 1943년 중반 이후부터 영국군과 공동으로 인도와 버마(미얀마)에서 통역과 첨보작전을 수행하였다. 1945년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전략첨보국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와 한반도 침투를 통해 적후방공작을 하는 ‘독수리작전’을 추진하고 준비하였으나 일본의 항복과 패망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48

### 광복군 군복 光復軍軍服

Uniform of Korean Independence Army

1940년대

면 인조털

등길이 94.5cm 가슴둘레 106cm

육군박물관 소장

광복군은 일제강점기에 만주 및 중국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만주를 포함한 중국 지역의 추운 날씨로부터 방한을 위해 안감은 솜을 대어 누볐으며,

더불어 브레스티드형으로 조립 단추를 부착하였다. 행동의 민첩성을 위해 팔 부분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이다. 중일전쟁(1937~1945) 시기 | 종

1941년에 일제가 제작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우리 애국지사들이 일군에서

탈출하여 독립운동을 할 때 착용한 방한복이다.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독립기념관 소장

1945년 2월경 한국광복군 제3지대 2구대 대원 문웅명(일명 문수열)이 동료 이정수에게 선물로 받은 태극기이다. 1946년 1월 문웅명이 다른 부대로 옮기게 되자, 동료 대원들이 자주 독립과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염원의 글귀와 서명 등을 적어서 전달하였다.



팔에 재중대한민국임시정부광복군예비대 在中大韓民國臨時政府  
光復軍豫備隊라고 쓰여있는 해전 완장이 당시의 고단했던 광복군의  
모습을 보여준다.



49

### 광복군 군모 光復軍軍帽

Military Hat of Korean Independence Army  
1940년대  
면 인조털  
높이 13cm 지름 20cm 드립 길이 20cm  
육군박물관 소장

50

### 광복군 군화 光復軍軍靴

Military Boots of Korean Independence Army  
1940년대  
가죽  
발길이 27cm 높이 26.5cm  
육군박물관 소장





51

백범 김구(1876~1949)의 친필 白凡金九 親筆

Calligraphy of Kim, Koo

1947년

종이에 먹

가로 43cm 세로 125cm

양준자(50회) 소장

정대광명 희평박애

언행이 멋떳하고 정당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총상의 후유증으로 생긴 김구의 떨림체를 확인할 수 있다.



大韓民國二十九年六月廿三日反託示威運動並行  
徐潤福選手凱旋歡迎大會臨時政府主席辦公室七十二歲老夫白凡金九

1947년(대한민국임시정부 29년) 서운복 徐潤福(1923~2017) 선수의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을 축하하며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인 박은식 朴殷植(1859~1925)의 아들이며 광복군이었던  
박시창 朴始昌(1903~1986)이 경교장(백범 김구 집무실)을 방문했을 때 직접 써준 글이다.



한미합동작전을 전개한 광복군 제2지대 국내정진대원  
중국 산동성 유현에서 원쪽부터 노능서, 김준엽, 장준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자료제공



장준하 군 보시길.

왕충이 중경으로 왔기에 일체를 알게 되었소. 그대들이 서안으로 떠난 이후 한미 합작이 점차 좋아졌소. 그대들의 생활과 정신이 상당히 볼 만하니 장래 대업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담임할 특종 기술을 갑자기 얻게 된 것은 과연 천우신조이며 그대들이 헌신 구국할 좋은 기회요.

바라건대 제군들은 성심성력을 다하길. 옛사람들이 말하는 “남들이 한 번 하면 나는 열 번하고 남들이 백 번하면 나는 천 번 한다.”는 실효를 얻기를 바라오.

나도 사정이 허락하면 그대들이 업을 마치고 실지 공작을 출발하기 전에 한 차례 서안을 방문하여 그대들을 반갑게 대면할까 하오. 여러 동지들 건강을 빕니다.

6.12 백범 서

52

### 백범 김구의 서한 白凡金九 書翰

Kim, Koo's Letter to Chang, Chun-ha

1945년 6월 12일

종이에 먹

가로 10.5cm 세로 25cm

장준하기념사업회 소장

## 유물목록



1 목면피갑 木綿皮甲  
Brass Studded Armor Lined with Leather Plates  
18~19세기  
면 가죽 금속  
등길이 97cm 화장 61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4 투구 胄  
Helmet  
18~19세기  
면 나무 금속  
높이 31cm 최대지름 23cm  
드림 길이 26~2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7 단동갑 細銅甲  
Brass Studded Armor Lined with Metal Plates  
18세기 초반  
총망단 능문면  
가죽 금속  
등길이 109cm 화장 64cm  
동찰 4.3×5.2cm  
경인미술관 소장



2 투구 胄  
Helmet  
18~19세기  
면 가죽 금속  
높이 28cm 최대지름 23cm  
드림 길이 25~26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5 목면피갑 木綿皮甲  
Brass Studded Armor Lined with Leather Plates  
18~19세기  
면 가죽 금속  
등길이 104cm 화장 52cm  
피찰 6×9.5cm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8 투구 胄  
Helmet  
18세기 초반  
총망단 가죽 금속  
높이 33cm 최대지름 23.7cm  
드림 길이 26~27cm  
경인미술관 소장



3 목면피갑 木綿皮甲  
Brass Studded Armor Lined with Leather Plates  
18~19세기  
면 가죽 금속  
등길이 106cm 화장 49cm  
피찰 6×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6 첨주 簪胄  
Helmet  
조선  
금속  
높이 21cm 최대지름 31.5cm  
양태 5.4~5.8cm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9 전갑 鈔甲  
Brass Studded Armor Lined with Metal Plates  
19세기  
모직 운보문단 금속  
등길이 107.5cm 화장 67.5cm  
아트앤크리에이티브 소장



10  
갑주함 甲冑函  
Case for Armor and Helmet  
19세기  
나무 금속  
가로 74cm 세로 46cm 높이 50cm  
아트앤크리에이티브 소장



13  
대원군 칠언시  
大院君 七言詩  
Poem of Lee, Ha-eung  
Written by Kim, Seong-geun  
1871년  
종이에 먹  
가로 24cm 세로 116cm  
개인소장



16  
요대 腰帶  
Waist Sash  
19세기  
면  
길이 143cm 너비 20.5~28cm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재현품 Replica  
제작 이민정 · 박경자 · 안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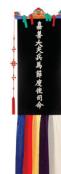
11  
투구 胄  
Helmet  
19세기  
모직 운보문단  
금속 밀총 옥  
높이 27cm 지름 20~21cm  
드림 길이 31cm 간주 길이 27.5cm  
아트앤크리에이티브 소장



14  
면갑 紡甲  
Cotton Armor  
19세기(1866~1870년)  
면  
앞길이 80cm 뒷길이 76cm  
품 6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록문화재 제459호



17  
면투구 紡胄  
Helmet  
19세기  
면 금속  
높이 24.5cm 지름 24cm  
드림 길이 16~17cm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재현품 Replica  
제작 이민정 · 박경자 · 안인실



12  
가선대부병마절도사사명기  
嘉善大夫兵馬節度使司命旗  
District Commander's Banner  
조선 후기  
공단 운문단  
가로 89cm 세로 290cm  
강화전쟁박물관 소장  
재현품 Replica  
제작 안인실



15  
면갑 紡甲  
Cotton Armor  
19세기  
면  
앞길이 82cm 등길이 78.5cm  
품 66cm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재현품 Replica  
제작 이민정 · 박경자 · 안인실



18  
갑주문판 甲冑紋板  
Stamps for Cotton Armor  
and Helmet  
19세기  
나무  
개인소장  
재현품 Replica  
제작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기호



19  
불랑기자모포 佛狼機子母砲  
Cannon  
조선  
금속  
모포 길이 79cm 자포 길이 21cm  
육군박물관 소장



22  
하위 장령환도  
下位將領環刀  
Sword  
조선  
가죽 나무 금속  
길이 87cm  
경인미술관 소장



25  
군복 軍服  
Military Uniform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반  
쌍용문갑사  
동다리 길이 121.7cm 화장 76cm  
전복 길이 123.5cm 품 45cm



20  
조총 鳥銃  
Matchlock Rifle  
조선  
나무 금속  
길이 128cm  
육군박물관 소장



23  
철릭 帖裏  
Man's Coat  
16세기  
명주  
등길이 153.5cm 화장 121cm  
복원 경운박물관 복원재현팀



26  
전복 戰服  
Man's Sleeveless Coat  
조선 후기  
쌍용문갑사  
길이 117cm 품 4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1  
고위 장령환도  
高位將領環刀  
Sword  
조선  
가죽 나무 금속  
길이 89cm  
경인미술관 소장



24  
답호 褒護  
Man's Coat  
16세기  
명주  
등길이 148.5cm 화장 64cm  
복원 경운박물관 복원재현팀



27  
전대 戰帶  
Military Sash  
조선 후기  
쌍용문갑사  
길이 402cm 너비 9.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8  
광대 廣帶  
Military Sash  
조선 후기  
장윤  
길이 100.8cm 너비 1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1  
바지 褄  
Pants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  
가죽  
길이 112.5cm  
충장사 소장  
재현품 Replica  
제작 안인실 박경자



34  
군용환도 軍用環刀  
Sword  
조선  
가죽 나무 금속  
길이 92.5cm  
경인미술관 소장



29  
광대 廣帶  
Military Sash  
조선 후기  
장단  
길이 106cm 너비 1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2  
사진보검 四辰寶劍  
Sword  
조선  
가죽 나무 금속  
길이 76cm  
경인미술관 소장



35  
흑칠장환도 黑漆裝環刀  
Sword  
조선  
가죽 나무 금속  
길이 84.5cm  
경인미술관 소장



30  
방령포 方領袍  
Square Collar Coat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  
가죽  
등길이 143cm 화장 120cm  
충장사 소장  
재현품 Replica  
제작 안인실



33  
어피갑금동장신수문대환도  
魚皮甲金銅裝神獸紋大環刀  
Sword  
조선  
가죽 나무 금속  
길이 96cm  
경인미술관 소장



36  
전립 戰笠  
Military Official's Hat  
19세기 후반  
양모 돈모 타조털 닦털 말총  
명주 은조사  
높이 11cm 지름 34.5cm  
독일 로텐바움박물관 소장  
재현품 Replica  
제작 박경자 이민정 안인실  
말총염색 송은자



37  
**친군영 군복** 親軍營軍服  
 Military Official's Uniform  
 19세기 후반  
 면 금속  
 등길이 82cm 화장 78cm  
 독일 로텐바움박물관 소장  
 재현품 Replica  
 상의제작 복원재현팀  
 지도 박경자 안인실  
 단추제작 오준곤



40  
**고위무관의장예도**  
 高位武官儀仗禮刀  
 Sword  
 19세기  
 금속  
 길이 95cm  
 경인미술관 소장



43  
**정석용 기병부위상복**  
 鄭錫溶 騎兵副尉常服  
 Military Police Lieutenant's  
 Uniform of Jung, Seok-yong  
 1900~1907년  
 모직  
 등길이 74cm 가슴둘레 86cm  
 육군박물관 소장



38  
**윤웅렬 육군부장상복**  
 尹雄烈 陸軍副將常服  
 Field Officer's Uniform of  
 Yun, Ung-nyeol  
 1897~1900년  
 모직  
 등길이 69cm 가슴둘레 95cm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41  
**보병부위예복**  
 步兵副尉禮服  
 Infantry Lieutenant's  
 Ceremonial Uniform  
 1900~1907년  
 모직  
 등길이 74.5cm 가슴둘레 91cm  
 육군박물관 소장  
 등록문화재 제543-6호



44  
**영친왕 군복** 英親王 軍服  
 Military Uniform of Imperial  
 Crown Prince Young  
 20세기 초반  
 모직  
 상의 등길이 92cm  
 가슴둘레 100cm  
 하의 길이 104.5cm  
 육군박물관 소장



39  
**윤웅렬 육군부장예복**  
 尹雄烈 陸軍副將禮服  
 Lieutenant General's Ceremonial  
 Uniform of Yun, Ung-nyeol  
 1900년 이후  
 모직  
 상의 등길이 44cm 가슴둘레 93cm  
 하의 길이 110cm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42  
**보병부위예모** 步兵副尉禮帽  
 Infantry Lieutenant's  
 Ceremonial Cap  
 1900~1907년  
 모직  
 높이 12cm 지름 17.5cm  
 육군박물관 소장  
 등록문화재 제543-6호



45  
**영친왕 군모** 英親王 軍帽  
 Military Cap of Imperial  
 Crown Prince Young  
 20세기 초반  
 모직  
 높이 13cm 지름 21cm  
 육군박물관 소장



46  
일본예도 日本禮刀  
Sword  
20세기 초반  
금속  
길이 90cm  
육군박물관 소장



49  
광복군 군모 光復軍軍帽  
Military Hat of Korean Independence Army  
1940년대  
면 인조털  
높이 13cm 지름 20cm  
드림 길이 20cm  
육군박물관 소장



52  
백범 김구의 서한  
白凡金九 書翰  
Kim, Koo's Letter to Chang, Chun-ha  
1945년 6월 12일  
종이에 먹  
가로 10.5cm 세로 25cm  
장준하기념사업회 소장



47  
영친왕 군복 보관함  
英親王 軍服保管函  
Military Uniform Case of Imperial Crown Prince Young  
20세기 초반  
가죽  
가로 48cm 세로 94cm 높이 27cm  
육군박물관 소장



50  
광복군 군화 光復軍軍靴  
Military Boots of Korean Independence Army  
1940년대  
가죽  
발길이 27cm 높이 26.5cm  
육군박물관 소장



48  
광복군 군복  
光復軍軍服  
Uniform of Korean Independence Army  
1940년대  
면 인조털  
등길이 94.5cm 가슴둘레 106cm  
육군박물관 소장



51  
백범 김구(1876~1949)의 친필  
白凡金九 親筆  
Calligraphy of Kim, Koo  
1947년  
종이에 먹  
가로 43cm 세로 125cm  
양준자(50회) 소장

#### 복원·재현 참여자

박경자 · 이숙명 · 강영서  
김귀란 · 김현순 · 김혜진  
이영희 · 이혜원 · 지미영  
문화원





## 조선을 지켜온 군사복식, 갑주(甲冑)

박가영

숭의여자대학교 교수

### 목차

- 
- 무기와 복식의 교차점, 갑주
  - 문헌에 기록된 조선전기의 갑주
  - 유물을 통해 본 조선후기의 갑주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조선말기의 갑주
  - 갑주와 함께 착용한 복식, 융복과 군복
  - 근대화 소용돌이 속 갑주의 운명

## ■ 무기와 복식의 교차점, 갑주

역사드라마의 전투장면에서 눈길을 끄는 복식은 바로 장수와 병사들이 착용한 갑주(甲冑)이다. 갑주는 갑옷(甲), 투구(冑)라는 글자 그대로 머리에 쓴 투구와 몸에 걸쳐 입은 갑옷이므로 복식(服飾)임은 분명하지만 평범한 복식은 아니다. 적의 공격용 무기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이다. 중국 5호16국 시대 하(夏)나라를 세운 혁련발발(赫連勃勃)은 화살이 갑옷을 뚫지 못하면 화살 만든 사람을 처형하고, 갑옷이 뚫리면 갑옷 만든 장인을 처단하였다.<sup>1)</sup>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격용 무기도 중요하지만 방어용 무기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갑주는 수많은 복식 중에서 아주 특별한 복식이다. 첫째, 복식의 다양한 기능과 특징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준다. 고조선 후기의 토광묘과 주거지에서 철, 뼈로 만든 갑옷조각(甲札)이 발견될 정도로 선사시대부터 갑주는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실용적 목적으로 착용되기 시작되었다. 갑옷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일본의 사무라이 갑옷, 오오요로이(大鎧)나 중국 청(清) 왕조 건륭(乾隆) 황제의 갑주를 보면 장식성과 신분 상징성을 확인하게 된다. 유럽의 중세 갑옷을 보면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 등 당시의 패션을 반영하는 모습도 보인다. 가문의 문장(紋章, heraldry)으로 화려하게 판금 갑옷을 장식하였고, 갑옷의 신발 역시 길이를 강조하는 고딕시대에는 풀랜느(poulaine) 형태로, 넓이를 강조하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오리 주둥이 모양처럼 납작한 덕스 빌(duck's bill) 형태로 제작되었다.<sup>2)</sup> 이처럼 갑주는 보호기능과 활동성을 바탕으로 발생하였고 시대가 내려올수록 장식적, 사회적, 상징적 기능이 부가되었다.

둘째, 다양한 재료와 최신기술이 결합된 종합복식이다. 갑주를 비롯한 군사복식에는 항상 당시의 첨단 재료와 기술력이 응집되어 있고, 적국이든 연맹국이든 전쟁을 통해 접촉한 주변국의 강점은 즉각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갑주를 보더라도 직물, 금속, 가죽, 모피, 솜, 옥, 칠보 등의 다종다양한 복합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전세계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디지털 무늬, 인공지능원단, 스텔스 기술(stealth technology)이 접목된 최첨단 군복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 국가 주도 하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량 생산된 복식이다. 갑주는 국가와 집단의 존속을 좌우하는 방어용 무기이므로 국가 산하 전담기관을 두고 갑주의 제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생산과 품질을 관리하였다. 조선시대의 경우 중앙에서는 관영수공업 형태로 군기감(軍器監) 안에 조갑소(造甲所)를 두고 갑장(甲匠)이 매달 일정량을 제조하였고, 지방에서는 군기감에서 만든 견본, 즉 견양(見樣)을 따라 동일한 규격과 사양으로 생산함으로써 표준화하였다.<sup>3)</sup>

1) 『晉書』 卷130, 載記第30, “射甲不入, 卽斬弓人, 如其入也, 便斬鎧匠”

2) 박가영(2019), 갑주에 반영된 복식의 유행,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3) 박가영(2005), 조선시대 갑주의 제조, 학예지12, p.197.

## ■ 문헌에 기록된 조선전기의 갑주

임진왜란 이전의 갑주는 유물이 많이 전해지지 않아 문헌사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문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갑주는 철갑(鐵甲), 피갑(皮甲), 지갑(紙甲)이다. 철로 만든 갑주는 견고하고 방호 능력이 탁월하여 가장 선호하는 조선시대 대표 갑주였으며 수은갑(水銀甲), 유엽갑(柳葉甲), 엽아갑(葉兒甲), 별철갑(別鐵甲) 등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철갑은 무겁고 차가워서 추운 계절에는 착용에 고통이 따랐고, 제작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사슴[鹿]·노루[獐]·돼지[豬]·소[牛]·말[馬] 등의 가죽으로 만든 피갑은 철갑에 비해 방호성은 떨어졌지만 가볍고 만들기가 쉬워서 군사 갑옷으로 널리 착용되었다. 종이를 접은 후에 칠(漆)하여 제작한 지갑은 가볍고 따뜻하며 제작과 염색이 용이하였고 비용도 절감되었으나 광택이 없고 좀 먹기 쉬우며 방호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갑주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세종실록(世宗實錄)<sup>4)</sup>과 1474년(성종 5)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sup>5)</sup>가 있다. 이는 국가의 오례(五禮) 중 군례(軍禮)에 사용되는 무기와 갑주들을 그림과 글로 기록한 내용으로서 두 기록을 종합해보면 조선전기 갑주의 형태와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 내용은 서로 유사하며 『국조오례의서례』에 몇 가지 갑옷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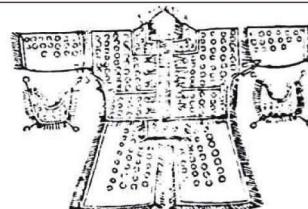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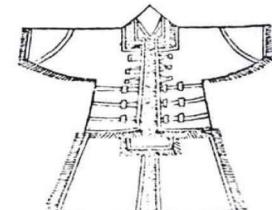
조선전기의 갑주는 <표 2>에서처럼 제작방식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갑찰을 끈으로 연결한 찰갑(札甲)이다. 찰갑은 직사각형의 작은 갑옷 조각, 갑찰(甲札)을 가로로 나란히 연결한 후 이를 다시 세로로 연결한 구조로서 신체를 보호하면서도 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세종실록』의 <그림 1>과 『국조오례의서례』의 <그림 2>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저고리 형태의 갑옷 뿐 아니라 부속갑옷으로 목을 보호하는 호항(護項)과 팔을 높이 들었을 때 겨드랑이 아래를 보호하는 호액(護腋) 역시 갑찰을 가로 세로로 연결한 찰갑 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에 쓰여진 기록과 같이 “유엽갑·피갑·지갑 역시 수은갑과 제도가 같다(水銀甲柳葉甲皮甲紙甲制同)”고 하였으므로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착용되었던 갑옷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선전기 문헌에 보이는 철갑, 피갑, 지갑은 찰갑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두 번째 유형은 철환(鐵環)으로 연결한 쇄자갑(鎖子甲, 鎮子甲)과 경번갑(鏡幡甲)이다. 쇄자갑은 철사로 작은 고리를 만들어 철환끼리 서로 끼어 만든 갑옷이고 경번갑은 철로 만든 갑찰[鐵札] 사이를 철로 만든 고리[鐵環]로 연결한 갑옷이다. 철환을 연속으로 연결하면 화살이나 칼날이 어느 이상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갑옷은 중세 유럽 갑옷에서 자주 보이

4) 『世宗實錄』 권133, 五禮 軍禮 序例 兵器.

5) 『國朝五禮儀序例』 卷4, 軍禮 兵器圖說.

〈표 1〉『국조오례의서례』에 기록된 조선전기 갑옷

그림	종류	설명
	수은갑 水銀甲	철로 갑찰을 만들고 수은을 바른 후 갑찰을 가죽끈으로 엮어 만든 갑옷 以鐵爲札 灌以水銀 用韋編成者曰 水銀甲
	유엽갑 柳葉甲	갑찰을 흑칠한 갑옷 其札黑染者曰 柳葉甲
	피갑 皮甲	돼지가죽으로 갑찰을 만들고 흑칠한 갑옷 札用生豬皮 以黑染者曰 皮甲
	지갑 紙甲	종이를 접어서 갑찰을 만들고 흑칠한 갑옷 摺紙爲札 而黑染者曰 紙甲
	채자갑 鎧子甲	철사로 작은 고리를 만들어 서로 펜 갑옷 用鐵絲作小環 相貫而成者曰 鎧子甲
	경변갑 鏡幡甲	철로 만든 갑찰과 철로 만든 고리를 사이사이 엮어 만든 갑옷 鐵札鐵環 相間以綴者曰 鏡幡甲
	두정갑 頭釘甲	두정갑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청색 면포로 옷을 만들고 철갑찰을 부착하되 철두정이 별처럼 배열되도록 고정한 갑옷이다. 又有頭釘甲 兩色 其一 以青綿布爲衣 編鐵札爲塑 而以鐵頭釘星列釘之
	황동두정갑 黃銅頭釘甲	다른 하나는 흥색 비단으로 옷을 만들고 안은 그을린 사슴가죽으로 만들며 소매를 별도로 만들어 끈으로 달고 황동두정으로 갑찰을 고정하고 흥색의 넓은 매듭띠가 있다. 其一 以紅段子爲衣 裏用烟鹿皮 別作袖有紐 以黃銅頭釘之 有紅廣條帶
	두두미갑 頭頭味甲	두두미갑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청색 비단으로 옷을 만들고 안은 그을린 사슴가죽으로 만들며 백은과 황동의 두 가지 색 두정을 교대로 고정하고 오색 매듭띠를 갖춘다. 다른 하나는 동일한 형식이지만 흥색 비단으로 옷을 만들고 흥색의 넓은 매듭띠를 매는 것에만 차이가 있다. 又有頭頭味甲 兩色 其一 以青段子爲衣 裏用烟鹿皮 以白銀黃銅兩色頭釘相錯釘之 有五色組帶 其一 制同 而衣用紅段子 帶用紅廣條

며, 쇄자갑은 메일 아머(mail armor), 경번갑은 메일 앤 플레이트 아머(mail and plate armor)라고 불린다. 서역에서 중국을 통해 도입된 갑옷의 유형으로서 조선 초기 기록을 보면 각 지역에서 매월 만들어서 올리는 월과(月課) 품목이었고,<sup>6)</sup> 숙위군사(宿衛軍士), 보쾌갑사(步牌甲士)가 착용하였다.<sup>7)</sup> 고려말 정지(鄭地, 1347~1391)의 경번갑 유물이 현재까지 전해진다.

세 번째 유형은 옷을 만들고 안쪽에 갑찰을 대고 두정(頭釘)으로 고정한 갑옷으로, 두정갑(頭釘甲), 황동두정갑(黃銅頭釘甲), 두두미갑(頭頭味甲)이 해당된다. 두정갑은 일반형 두정갑과 고급형 황동두정갑으로 구분되었다. 두정갑은 청색 면포로 만든 옷에 철갑찰을 철두정으로 고정시킨 반면 황동두정갑은 흥색 비단으로 만든 옷에 사슴가죽갑찰을 황동두정으로 고정하였다. 여기에 별도로 소매를 만들어 끈으로 연결하여 달았으며 겨드랑이 아래를 보호하는 호액을 갖추고 갑옷과 동일한 흥색으로 넓은 매듭띠를 갖추었다. 두두미갑은 색상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되지만 비단 옷에 가죽갑찰을

〈표 2〉 조선전기 갑옷의 종류와 유형

유형	종류		의	갑찰	철	끈	고리	두정	대
I 갑 甲	수은갑 水銀甲	-	철 鐵	수은 水銀	가죽 韋	-	-	-	
	유엽갑 柳葉甲	-	철 鐵	흑칠 黑柒	가죽 韋	-	-	-	
	피갑 皮甲	-	돼지가죽 生豬皮	흑칠 黑柒	가죽 韋	-	-	-	
	지갑 紙甲	-	접은 종이 摺紙	흑칠 黑柒	가죽 韋	-	-	-	
II	쇄자갑 鎧子甲	-	-	-	-	철 鐵	-	-	
	경번갑 鏡幡甲	-	철 鐵	-	-	철 鐵	-	-	
III 두정갑 頭釘甲	두정갑 頭釘甲	청색 면 青綿布	철 鐵	-	-	-	철 鐵	-	
	황동두정갑 黃銅頭釘甲	흥색 비단 紅段子	사슴가죽 烟鹿皮	-	-	-	황동 黃銅	붉은 매듭띠 紅廣條帶	
	두두미갑 頭頭味甲	청색 비단 青段子	사슴가죽 烟鹿皮	-	-	-	백은, 황동 白銀, 黃銅	오색 매듭띠 五色組帶	
		흥색 비단 紅段子	사슴가죽 烟鹿皮	-	-	-	백은, 황동 白銀, 黃銅	붉은 매듭띠 紅廣條帶	

6) 『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11월 癸卯 : 『世宗實錄』 권24, 세종 6년 5월 己亥 : 『世宗實錄』 권30, 세종 7년 11월 辛亥.

7) 『世宗實錄』 권49, 세종 12년 8월 辛未 : 『世宗實錄』 권51, 세종 13년 3월 辛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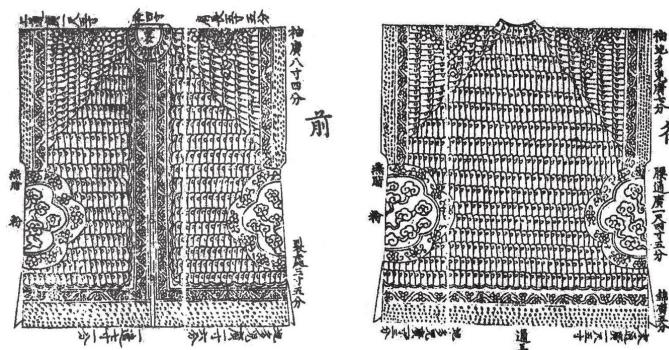
〈그림 1〉『세종실록』 갑(甲)



〈그림 2〉『국조오례의서례』 수은갑

두정으로 장식하고 넓은 매듭띠를 갖추는 등 전반적으로 황동두정갑과 유사한 특징을 지녔다. 〈표 1〉을 보면 그림에서는 두정이 그려져 있지 않으나 설명을 보면 백은과 황동의 두 가지 재료로 두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황동두정갑보다 더욱 화려한 외양을 갖추었으리라 추정된다.

1493년(성종 24) 간행된 『악학궤범(樂學軌範)』에도 갑주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그림 3). 황화갑(黃畫甲)<sup>8)</sup>은 비록 정재(呈才)를 위해 만든 복식이고 비단 위에 갑옷의 형상을 채색으로 그렸지만 당



〈그림 3〉『악학궤범』 황화갑



〈그림 4〉 류성룡 갑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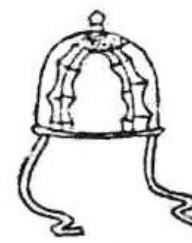
8) 『樂學軌範』 卷9, 冠服圖說 黃畫甲.

시 갑주의 구조와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세종실록』, 『국조오례의서례』의 간행연대와 시기적으로 근접하므로 참고해볼 가치가 있다. 세로로 긴 갑찰을 가로 세로로 연결한 찰갑, 앞중심에서 여미는 좌우 대칭 구조, 5쌍의 여밈장치, 겨드랑이 아래를 보호하는 호액, 소매부리와 도련에 두른 선단 장식 등은 <그림 1>과 <그림 2>의 특징과 일치한다. 정대업 정재에서 착용하는 오색단갑(五色綬甲)은 네모난 옷깃, 앞중심에서 여미지는 좌우 대칭 구조, 배래와 옆선의 트임, 소매부리와 도련의 배색, 선단과 술장식 등의 갑옷 특징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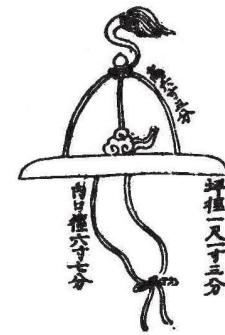
문헌사료의 도설에 기록된 조선전기 찰갑(유형 I)의 특징이 확인되는 유물로는 <그림 4>의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갑옷이 있다. 파손이 심하여 원래 형태와 구조의 완전한 복원은 어렵지만 남아 있는 600여 개의 갑찰을 보면 갑옷 제작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가죽을 직사각형으로 자르고 바깥쪽에서 흑질을 한 후 구멍을 뚫고 가죽끈으로 가로·세로로 연결하고 가장자리를 복륜하였다.<sup>10)</sup> 두정갑(유형 III)에 해당하는 조선 중기 유물로는 정공청(鄭公淸, 1563~1643) 갑옷, 정충신(鄭忠信, 1576~1636) 갑옷, 조필달(趙必達, 1600~1664) 갑옷이 있다.



&lt;그림 5&gt; 『국조오례의서례』 첨주



&lt;그림 6&gt; 『국조오례의서례』 원주



&lt;그림 7&gt; 『악학궤범』 투구



&lt;그림 8&gt; 황대곤 철제 첨주 (강화전쟁박물관)



&lt;그림 9&gt; 철제 첨주 (연세대학교박물관)



&lt;그림 10&gt; 류성룡(1542~1607) 철제 투구



&lt;그림 11&gt; 정공청(1563~1643) 철제 투구

9) 『樂學軌範』 卷8, 定大業呈才儀物圖說 五色段甲.

10) 박가영·이은주(2009), 서애 류성룡 갑옷의 형태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 복식59(5), pp.10-11.

다음으로 투구를 살펴보면, 조선전기 투구는 차양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세종실록(世宗實錄)』<sup>11)</sup>과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sup>12)</sup>의 기록에 투구는 모두 철(鐵)로 만든다고 하였으며 차양이 있는 첨주(簷胄)와 차양이 없이 머리를 감싸는 부분만 있는 원주(圓胄)로 나누었다. <그림 5>와 <그림 6>에서 4조각의 철판을 대나무 형태의 근철(筋鐵)로 연결하고 상단에 물방울 형태의 꼭지와 꽂받침 형태의 판을 덮었으며 하단 좌우에는 끈을 달아 턱 밑에서 매도록 하였다. <그림 5>의 첨주는 <그림 6>의 원주와 다르게 술이 달리고 장식이 추가되어 더 높은 신분에서 착용했으리라 예상된다. <그림 7>은 『악학궤범』의 투구(胄)로서 정대업 정재 여기(女妓)들이 썼으며 겉은 검정색, 안은 붉은색 비단으로 싸고 상단에는 금(金) 꼭지와 홍색 상모(象毛)를 달고 좌우에는 운월아(雲月兒)를 장식하였다.<sup>13)</sup>

차양이 둑글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달린 첨주 유물로는 조선 중기의 황대곤(黃大坤, 생졸미상) 철제 투구<그림 8>와 연대 미상의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철제 투구<그림 9>가 있다. 류성룡 철제 투구<그림 10>와 조선 중기 정공청(鄭公清, 1563~1643)의 철제 투구<그림 11>는 앞쪽으로 차양이 달려 있으나 나머지 구조와 장식의 형태는 『국조오례의서례』의 도설과 일치한다.

### ■ 유물을 통해 본 조선후기의 갑주

조선후기에는 문헌, 회화, 조각 등 갑주 관련 사료들이 많으며, 시대가 내려올수록 많은 유물이 전해져서 갑주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먼저 갑주 도설이 포함된 문헌사료로는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정조)국장도감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 『융원필비(戎垣必備)』 등이 있다. <그림 12>의 1790년(정조14) 『무예도보통지』의 갑주는 마상무예를 훈련하기 위한 복식으로서 투구인 회(盜), 상반신 갑옷인 갑(甲), 하반신 갑옷인 갑상(甲裳), 갑옷부속구인 염심(掩心)과 호액(護腋)으로 구성된다.<sup>14)</sup> <그림 13>의 1800년(순조14) 『(정조)국장도감의궤』의 갑주는 정조의 국장 때부장하는 의물인 명기(明器)의 하나로서 종이에 채색그림을 그리고 1/5 크기로 작게 만들었으나 평상시 착용하던 갑주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그림 14>의 1813년(순조13) 훈련도감에서 발행한 병서(兵書) 『융원필비』에는 피주(皮胄)와 피갑(皮甲), 즉 가죽으로 만든 투구와 갑옷이 그려져 있다.<sup>16)</sup> <그림 12>~<그림 14>의 도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조선후기 갑주의 가장 큰 특징은 두정(頭釘)

11) 『世宗實錄』 권133, 五禮 軍禮 序例 兵器.

12) 『國朝五禮儀序例』 卷4, 軍禮 兵器圖說, “說文 兜鍪也 兜鍪首鎧也 以鐵爲之 有簷曰 簪胄 無簷曰 圓胄”

13) 이혜구 역주(2000), 『한국음악학 학술총서5』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pp.494-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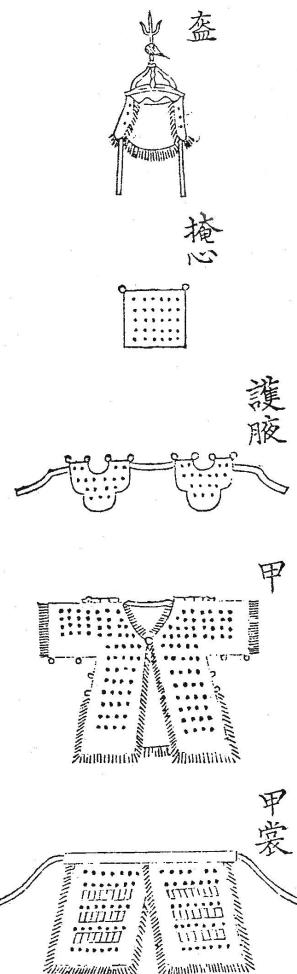
14) 『武藝圖譜通志』, 卷4, 冠服圖說 馬藝冠服圖說.

15) 『(正祖)國葬都監儀軌』, 卷2, 二房儀軌 明器秩 甲과 胄. “甲一 用青凌花九續爲札 用彩畫頭釘 緣飾用鹿皮 ○ 用常制五分之一 所入 青凌花半張 紫的鹿皮長七寸廣二寸一片. 胄一 用椴板爲殼鍛鐵有兩纓 ○ 用常制五分之一 所入 椴木方三寸長三寸一片 付 鐵次鎰鐵五分 付金次小貼金一張 纓次紅真絲五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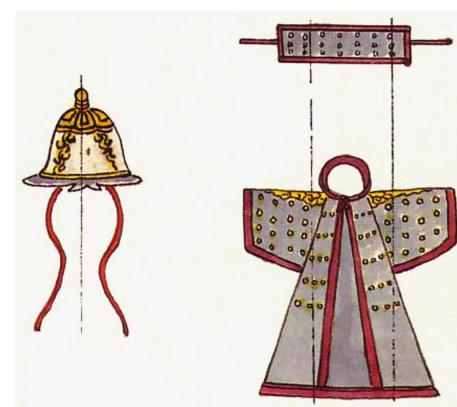
16) 『戎垣必備』, 皮甲, 皮胄.

의 배열이다. 조선전기에 가죽끈으로 갑찰을 연결한 찰갑, 철환으로 연결한 쇄자갑과 경변갑, 두정으로 갑찰을 고정한 두정갑까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던 반면, 조선후기에는 옷을 만들고 옷의 안쪽에 갑찰을 배열한 후 옷의 바깥쪽에서 머리가 둉근 못, 즉 두정으로 고정시키는 두정갑 유형이 완전히 정착되고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갑옷 구조의 공통점은 좌우대칭형 합임(合衽)에 소매가 짧고 배래가 트여있으며, 어깨에 견철(肩鐵)을 달았고 가장자리를 따라서 모피나 배색 선단을 두른 점이다. 투구는 조선전기의 첨주와 원주가 모두 있지만, 원주의 정수리장식이 높아지면서 삼지창, 상모 등의 장식이 달리고 두정이 박힌 드림이 얼굴과 목의 옆과 뒤를 보호하며 앞쪽만 차양이 달리고 이마가리개와 근철 장식이 화려해지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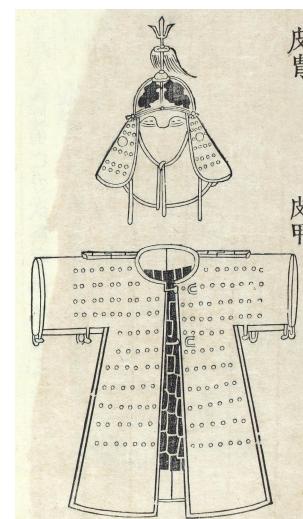
이러한 조선후기 갑주의 특징은 국내와 해외에 소장된 유물들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15>~<그림 22>의 투구 유물을 보면 재료와 색상, 장식의 차이가 있고 파손이나 결락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그림 12>『무예도보통지』 마예관복도설



<그림 13>『정조국장도감의궤』 갑과 주



<그림 14>『웅원필비』 피갑과 피주



〈그림 15〉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  
민속박물관  
OAs 7761 a-c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제공



〈그림 16〉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OAs 7762 a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제공



〈그림 17〉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OAs 7764 a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제공



〈그림 18〉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  
박물관 OAs 7763 a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제공



〈그림 19〉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16.78



〈그림 20〉 육군박물관



〈그림 21〉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36.25.78



〈그림 22〉 서울대학교  
박물관



〈그림 23〉 조선후기 투구의 구조와 세부명칭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OAs7756 a-c,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제공

구조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3>의 구조도를 보면 투구는 머리가 들어가는 투구감투, 위쪽으로 높이 세운 정수리장식, 아래쪽의 드림까지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투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구감투로서 머리와 상투가 들어가도록 위가 뾰족한 반구형으로 만들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이나 놋쇠와 같은 금속으로 만들거나 가죽이나 종이를 여러 겹 겹친 후 옻칠을 하여 강도를 높인다. 투구감투용 가죽은 대부분 소, 돼지 등을 사용했으며 상어가죽인 교피(鮫皮)로 만든 유물도 있다. 옻칠은 대부분 흑칠(黑漆)이며, 가끔 <그림 17>처럼 주칠(朱漆)을 한 유물도 있다. 투구감투에 있는 세로선은 근철(筋鐵)로서, 투구감투를 성형하기 위해서 4조각 혹은 2조각으로 만든 후 좌우 조각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 투구감투, 이를 연결하기 위한 근철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단에는 반구형의 뚜껑인 개철(蓋鐵)을 덮고 하단에는 가로로 띠모양의 대철(帶鐵)을 한 바퀴 두른다. 장관급 투구는 투구감투 위에 용, 봉황, 여의주, 구름 장식을 추가하고 근철, 개철, 대철도 전보(錢寶)와 덩굴무늬 등을 투조하기도 하고 은입사(銀入絲)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투구감투의 앞쪽에는 차양과 이마가리개가 있다. 신분이 높은 경우 차양 역시 용봉문양으로 투조하여 장식성이 매우 강하다. 이마가리개는 안와(眼窩)를 따라 곡선으로 형태를 만들었으며 이마 정중앙에 백옥 장식을 끼우거나 원수를 상징하는 ‘元帥’, 부원수를 의미하는 ‘元副’ 등 글씨가 압출된 경우도 있다.

투구감투의 위쪽으로는 정수리 장식을 화려하게 꾸며준다. 우선 길이를 연장하여 위용을 높이기 위해서 긴 원통형 간주(幹柱)를 세우고 삼지창(三枝槍)이나 불꽃 모양의 장식을 꽂는다. 장식 바로 아래에는 붉은 색 상모를 사방으로 둘러서 착용자가 움직이면 휘날리도록 하였다. 정수리 장식을 끼운 채로 두면 보관이 불편하므로 간주 부분을 분리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투구감투의 아래쪽에는 드림을 부착하여 얼굴과 목부분을 보호하였다. 대부분의 유물은 옆드림 2장과 뒷드림 1장으로 구성되며 좌우 옆드림을 투구감투 하단에 부착하고 그 위에 뒷드림을 겹쳐서 부착하였다. 조선후기 투구는 2쌍의 끈이 달려 있는데, <그림 14>의 피주(皮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쌍은 투구감투의 좌우 하단에 S자의 걸고리로 연결하여 턱 밑에서 묶어 매기 위한 끈이고, 다른 1쌍은 옆드림의 아래쪽에 달아서 평상시나 더울 때 뒤로 묶기 위한 끈이다.

조선후기 갑옷 역시 전형적인 구조와 특징을 보인다. <그림 24>~<그림 29>의 여러 가지 갑옷 유물을 보면 모두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신체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둑근 목둘레는 최대한 올라오고, 갑옷의 두께로 인해 앞섶을 겹쳐 입기 어려우므로 앞중심이 맞닿는 좌우대칭형이며, 역시 갑옷의 두께로 인해 바느질이 어려우므로 배래선과 옆선이 전부 혹은 일부 트여있다. 말을 타기 위해 뒷중심선이 트여 있는 경우도 많다. 갑옷의 소매는 짧고 옷길이도 길지 않아서 매우 활동적이다. 어깨에는 견철(肩鐵)이 달려 있어 옷이 앞이나 뒤로 치우치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견철의 길이가 길면 어깨와 팔의 동작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2~4조각으로 분리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신분이 낮은 경우 단순한 직사각형이지만 높은 장관급 갑옷의 견철은 용(龍)의 형



〈그림 24〉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OAs 7756 d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제공



〈그림 25〉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X957.2b



〈그림 26〉 고려대학교박물관



〈그림 27〉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8〉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OAs 7762 b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제공



〈그림 29〉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OAs 7763 b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제공



〈그림 30〉 조선후기 갑옷의 구조와 세부명칭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OAs7756 d, OAs7757f,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제공

태로 정교하게 제작되었고 용머리가 바깥을 향하도록 하는데 때로는 용의 입 앞에 백옥 여의주를 부착하여 마치 용이 여의주를 향하는 모습으로 만든 유물도 있다. 두정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며 갑찰이 없는 부분에도 두정을 장식하기도 한다. 목둘레선, 앞중심선, 도련, 옆선과 배래, 소매부리 등 가장자리와 트임을 따라서 모피나 가죽, 다른 색 직물을 둘러주는 경우가 많다.

군영(軍營) 고문서(古文書) 등의 문헌 기록과 결합해보면 여러 색의 단(緞)이나 홍색 전(氈), 무명(木綿), 삼승포(三升布) 등으로 옷을 만들고 안쪽에 철, 가죽, 구리[銅]로 만든 갑찰을 댄 후 두정으로 갑찰을 고정하는 갑주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조선전기의 두정갑·황동두정갑·두두미갑의 계보를 잇는 갑옷 유형이었으나, 조선후기에는 거의 모든 갑주가 이러한 유형이었기에 더 이상 두정갑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지 않았다. 또한 의(衣)의 재료와 갑찰의 재료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였다. 갑찰의 종류에 따라서 구조에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철 갑찰은 겉감과 안감 사이에 놓이므로 갑찰이 노출되지 않으나, 가죽 갑찰은 안감의 위쪽에 놓이므로 <그림 27>, <그림 28>처럼 흑칠한 가죽 갑찰이 드러나게 된다. <그림 29>와 같이 철 갑찰이라도 피갑(皮甲)처럼 갑찰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갑찰이 녹슬고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위험하므로 이런 유물은 매우 드물다. 예로부터 방호력이 우수한 철갑을 선호하였기에 장관급 갑주는 다흥색 전(氈)이나 단(緞)으로 만든 옷에 철 갑찰을 부착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이러한 갑옷은 갑찰이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갑찰 없이 만들어도 눈으로 보고 구별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가 지속되자 장수들은 철 갑찰[鐵札]이 없이 비단으로만 만든 식양갑(飾樣甲)을 착용한 채 군사의례[軍禮]에 참여하였고 영조의 금령과 처벌에도 이러한 일은 반복되었다.<sup>17)</sup> 현재 전해지는 유물 중에도 갑찰이 없이 옷에 두정만 있는 갑옷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림 26>은 두석판을 반타원형으로 만들고 흑칠과 주칠을 한 후 붉은 색, 검정색, 황색의 세 가지 색 갑찰을 물고기 비늘 모양이 되도록 배열하여 옷의 바깥쪽에 부착한 갑옷이다. 이는 『만기요람(萬機要覽)』에 기록된 어영청에 지급된 두석린갑주(豆錫鱗甲胄) 1부(部)<sup>18)</sup>에 해당하는 고위 장수의 갑주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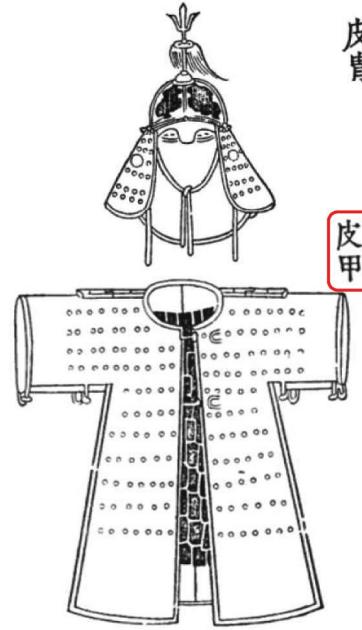
조선후기 갑옷의 종류는 철갑(鐵甲), 피갑(皮甲), 단갑(緞甲), 전갑(氈甲), 단철갑(緞鐵甲), 단피갑(緞皮甲), 두석린갑(豆錫鱗甲), 삼승갑(三升甲)·목면갑(木綿甲)·쇄자갑(鎖子甲) 등이 있다. 이중 철갑은 갑찰이 철인 갑옷, 피갑은 갑찰이 가죽인 갑옷이다. 그런데 조선전기에는 갑찰을 가로 세로로 연결하여 칠갑(札甲)을 만들었던 반면 조선후기에는 옷의 안쪽에 갑찰을 두정으로 고정하였다. 결국 동일한 명칭이라도 시기에 따라 다른 형식의 갑옷이었다. 예를 들어 피갑(皮甲)의 경우 조선전기에는 『국조오례의서례』의 <그림 31>과 같은 칠갑 구조로 제작하였고, 조선후기에는 『용원필비』의

17) 『英祖實錄』 권56, 영조 18년 8월 壬寅 ; 『增補文獻備考』 卷114 兵考6 教閱2 ; 『英祖實錄』 권56, 영조 18년 8월 壬寅 ; 『英祖實錄』 권58, 영조 19년 7월 癸巳 ; 『英祖實錄』 권65, 영조 23년 7월 丙午.

18) 『萬機要覽』 軍政篇3, 御營廳 軍器.



〈그림 31〉『국조오례의서례』에 기록된 조선전기의 피갑



〈그림 32〉『융원필비』에 기록된 조선후기의 피갑

〈그림 32〉와 같이 옷의 안쪽에 가죽 갑찰을 댄 구조로 제작하였다.

단갑은 비단으로 옷을 만든 갑옷, 전갑은 모직물로 옷을 만든 갑옷이다. 이중 단갑은 장수의 갑옷으로 널리 착용되어 대단(大緞), 운문단(雲紋緞), 용문단(龍紋緞), 모단(冒緞), 화단(禾緞), 장단(壯緞), 장단(漳緞), 우단(羽緞) 등 여러 종류의 단(緞)이 사용되었다. 또한 같은 항목에 단갑(緞甲), 단철갑(緞鐵甲), 단피갑(緞皮甲)의 명칭이 동시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sup>19)</sup> 단(緞)으로 옷을 만든 갑주에는 갑찰이 없는 것, 철갑찰이 달린 것, 가죽갑찰이 달린 것의 3종류가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에 유행했던 찰갑 형식의 갑주 대신 별도로 만들어진 옷에 두정으로 갑찰을 고정하는 갑주 형식이 확산되자 적극적으로 직물 재료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갑주는 다양한 색과 문양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단(緞)과 전(氈)은 고급직물이었으므로 초관(哨官) 이상의 장수 계급이 착용하였고, 그중에서도 다흥색으로 만들어진 갑옷은 더욱 귀하게 여겨졌다. 『만기요람』에 기록된 어영청의 다흥성성전도금동엽갑주(多紅猩猩氈塗金銅葉甲冑), 『어영청등록(御營廳詹錄)』의 성성전갑주(猩猩氈甲冑), 무위영의 고문서인 『무위영각색군기완파구별성책(武衛營各色軍器完破區別成冊)』에 기록된 홍전갑주(紅氈甲冑)는 모두 붉은 색 전(氈)으로 만든 갑주이며 홍우단갑주(紅羽緞甲冑)는 붉은 색 비단으로 만든 갑주로서, 현재 전해지는 장관급 갑주 유물의 대부분이 붉은 색인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한 홍전갑주와 우단갑주(羽緞甲冑)에는 수달피(水獺皮)로 선(綰)을 들렀다는 기

19) 『武衛營各色軍器完破區別成冊』官馬所 甲冑秩.

록이 남아있는데, 가장자리를 따라서 모피를 두르는 제작방식 역시 조선후기 유물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기록 순서나 수량 비교를 통해서 보았을 때 단갑주와 전갑주가 가장 귀했고, 삼베로 만든 삼승갑주(三升甲胄)와 윤포갑주(潤布甲胄)가 다음이고 무명으로 만든 목면갑주(木綿甲胄)가 제일 하등품이었다. 목면갑주는 하급 군졸들의 갑옷으로 변방 군사들의 평상시 훈련용으로 착용하였다. 한편 쇄자갑과 경번갑이라는 명칭은 조선후기 기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쇄자갑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 육군박물관 등에 여러 점이 있고 경번갑 유물<sup>20)</sup>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1점 소장되어 있으며, 순조 대에 어영청에 지급한 갑주 중에서 환갑주(環甲胄)와 사슬갑주[沙士乙甲胄]가 포함되어 있어<sup>21)</sup> 조선후기까지도 쇄자갑, 경번갑 계통 갑주가 착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조선후기 갑주는 갑옷의 의(衣) 부분과 투구의 드림 부분을 동일한 색상과 문양의 직물로 제작하여 일습(一襲)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흑광단철갑주(黑廣綵鐵甲胄)는 흑색 광단으로 갑옷의 옷부분과 투구의 드림을 만들고 철 갑찰을 두정으로 고정시킨 갑주이고, 두석린갑주는 갑옷의 옷부분과 투구의 드림부분에 두석린이 부착된 갑주이다. 각 군영의 무기 재고 조사를 하다가 갑옷과 투구의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삼승피갑(三升皮甲)과 삼승피주(三升皮胄),<sup>22)</sup> 삼승갑의(三升甲衣)와 삼승주(三升胄),<sup>23)</sup> 목면갑의(木綿甲衣)와 목면두구(木綿頭口)로<sup>24)</sup> 분리하여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 삼승피갑주 일습의 경우 갑옷과 투구는 각각 삼승피갑과 삼승피주로, 삼승갑주 일습은 삼승갑의와 삼승주로, 목면갑주 일습은 목면갑의와 목면두구로 구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갑옷과 투구의 연관성 및 명칭을 보았을 때 조선후기 투구는 앞서 살펴 본 갑옷의 종류와 대응이 되도록 철주(鐵胄), 피주(皮胄), 단주(綵胄), 전주(氈胄), 단철주(綵鐵胄), 단피주(綵皮胄), 두석린주(豆錫鱗胄), 삼승주(三升胄), 목면주(木綿胄)가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다만 철투구[鐵頭口], 가죽투구[皮頭口], 목면투구[木綿頭口]와 같이 투구만 단독으로 일컬을 때에는 주(胄) 대신 두구(頭口)를 붙여 쓰기도 하였다.

갑주의 명칭은 색상, 신분, 재료, 부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요소는 재료로서 여러 복합 재료 중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대표가 될 만한 재료를 선택하여 이름을 붙였다.<sup>25)</sup> 투구는 투구감투의 재료를 기준으로 명명하기도 하고 드림의 재료를 기준으로 명명하는 경우도 생겼다. 철주는 투구감투를 철로 만든 투구, 피주는 투구감투를 가죽으로 만든 투구이고, 단주, 전주, 단철주, 단피주, 두석린주, 삼승주, 목면주 등은 드림의 재료를 기준으로 명명한 투구이다.

20) 이효진 외(2012),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경번갑 보존 및 제작기법 연구, 한국기독교박물관지 제8호, 서울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pp.110-119.

21) 『萬機要覽』軍政篇3, 御營廳 軍器.

22) 『軍器色重記』순조 15년(1815) 武衛所, 장서각 2-3282.

23) 『武衛營各色軍器完破區別成冊』官馬所 甲胄秩.

24) 『萬機要覽』軍政篇2 附 龍虎營 軍器와 軍政篇3 御營廳 軍器.

25) 박가영(2003),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pp.36~37.

##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조선말기의 갑주

1866년(고종 3)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병인양요(丙寅洋擾)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조선은 양이정책(攘夷政策)인 통상수교거부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 일본과 서구의 문호개방 요구에 맞서기 위해 흥선대원군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책을 모으고 군기와 갑주를 정비하고 성능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새로운 갑옷의 개발과 착용 훈련이었다.

면포가 총알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 흥선대원군이 이를 시험해 보았다. 면포 몇 겹에 솜을 둔 후 화살을 쏘아보니 모두 페뚫어버렸고, 12겹을 겹쳤을 때에야 페뚫지 못했다. 마침내 포군(砲軍)으로 하여금 면포 13겹에 솜을 두어 만든 배갑(背甲)과 등나무로 만든 투구(藤兜)를 착용하고 훈련하도록 하니, 한여름에는 군사들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여 모두 코피를 쏟았다.<sup>26)</sup>

성능실험을 거쳐서 완성된 갑옷은 현재까지 유물로 전해진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은 <그림33>, <그림 34>에서와 같이 무명을 30겹 겹친 후 옴마니반메훔의 산스크리트어 육자대명왕 진언, 석류, 문자 등 원형의 부적(符籍)을 먹[墨]으로 인문하였다. 대원군의 성능실험에서 면포 사이에 솜을 두어 만들었다는 기록과는 달리 면포, 즉 무명만을 30겹 겹쳐서 제작하였으나, 이는 기록 시점 이후에 최종 완성된 면갑의 제도였으며 여러 겹을 겹쳐서 탄환의 관통력을 저하시키는 원리는 현대의 케블라(Kevlar) 방탄조끼와 일치한다. 수십 겹을 겹친 면포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 으므로 상반신의 몸통 부분만 가리는 배갑(背甲) 형태로 제작되었다. 국내 유물은 갑옷 1점만 남아 있으나



<그림 33> 면갑(앞)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34> 면갑(뒤)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35> 면제갑주(앞)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그림 36> 면제갑주(뒤)  
메트로폴리탄박물관

26) 朴齊炯 著, 李翼成 譯, 『近世朝鮮政鑑』 1886(丙戌), 서울 : 探求堂, 1975, p.75

有言綿布可禦銳丸, 令試之, 綿布夾續作數重, 射皆洞貫, 累至十二重, 乃不透過, 遂以綿布十三重, 夾續, 爲背甲, 頭戴藤兜, 以練砲軍, 盛夏, 軍不堪其熱, 皆流鼻血鼻.

〈표 3〉 국가별 해외박물관 소장 면갑 유물

국가	소장처	투구	갑옷	허리띠	가슴가리개
미국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	○	○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	○	-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	-	-	-
	Moosnick Museum	○	-	-	-
영국	Pitt Rivers Museum	○	○	○	○
프랑스	Musée de l'Armée (Les Invalides)	-	○	-	-
일본	Tokyo National Museum	○	○	-	-

〈표 3〉과 같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의 여러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말기의 면갑 유물을 보면 동일한 재질로 만든 투구, 갑옷, 넓은 허리띠, 가슴가리개가 일습을 이루고 있으며<sup>27)</sup> 함께 착용한 모습은 〈그림35〉, 〈그림 36〉과 같다.<sup>28)</sup>

이 시기에는 기존에 널리 보급되어 있던 조선후기 투구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와 재료로 만들어진 등투구[藤頭口]도 도입되었다. 등투구는 등나무로 만든 원추형 투구로서 원래 더운 기후의 중국 남쪽 지방에서 쓰는 투구였으며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 필요에 의해 조선에 들여오게 되었다. 19세기 말 새로운 갑주의 성능실험과 포군(砲軍)의 군사훈련 기록에서 등나무로 만든 투구[藤兜]에 면포로 만든 배갑[綿布背甲]을 착용하고 훈련하였다고 했는데, 실제로 1870년(고종 7) 운현궁에서 별도로 갖춘 군기 중에 등투구 22부(部)도 포함되어 있다.<sup>29)</sup> 1870년이라는 시기와 운현궁에서 별도로 구비하였다는 사실로 보았을 때, 등투구는 홍선대원군이 1866년 병인양요 이후 외국 군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림 37〉의 등투구를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육군박물관(그림 38), 일본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유슈칸(遊就館)에 있는 철

27) 박가영(2019), 해외박물관 소장 조선후기 면갑(綿甲) 유물 분석, 복식 69(4), pp.162-165 : 이민정 · 박경자 · 안인실 (2019), 조선후기 면제갑주(綿製甲冑) 문양에 대한 연구 I : 문양의 분석과 복원을 중심으로, 복식69(6), pp.118-119.

28) 박가영 · 송미경(2013), 조선 후기 면갑(綿甲) 유물 분석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복식 63(4), p.164. 에서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면갑 유물의 착장 사진은 허리띠의 앞과 뒤가 바뀌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목면과 갑에서의 인문 위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허리띠에서 동 · 서 · 남 · 북 · 중앙의 5방위로 배열된 음마니반메훔 문양이 앞면 으로 오고 글자가 빼곡하게 찍힌 구성팔문부(九星八門符) 문양이 뒷면으로 가도록 고쳐 매어야 한다.

29) 『武衛營各色軍器完破區別成冊』庚午雲峴宮別備秩 軍器及雜物.



〈그림 37〉 등투구  
육군박물관



〈그림 38〉 철제 흉갑  
육군박물관

제 흉갑 역시 조선말기에 새로이 개발된 갑옷이다. 면포로 만든 배갑과 마찬가지로 상반신만 가릴 수 있도록 조끼 형태로 제작되었다. 흑색 무명 겉감에 백색 무명 누비 심지를 대고 두꺼운 무쇠 통판을 가슴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진동선의 곡선, 앞중심의 개폐장치를 보았을 때 제작시기는 조선말기로 판단되며, 이 역시 흥선대원군 시기에 개발한 갑주의 하나라 여겨진다.

1870년을 전후하여 면포로 만든 배갑, 즉 새로운 제도의 면갑을 개발하였으나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것은 아니었다.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갑주의 재료와 문양 등의 요소를 재구성하여 만들었다. 〈표 4〉를 보면 목면피갑, 목면철갑, 면포배갑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목면피갑은 목면으로 옷을 제작하고 가죽갑찰을 두정으로 고정한 갑옷이고 목면철갑은 목면피갑에서 갑찰의 재료를 철로만 바꾼 갑옷이다. 이에 비해 면포배갑은 탄환의 관통을 막기 위해 수십 겹의 무명을 겹치면서 갑찰을 없애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 소매를 없애고 길이도 짧게 바꿨으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앞트임을 어깨트임으로 바꿨으나 무명을 염색한 색상, 부적의 문양과 위치까지도 목면피갑, 목면철갑과 일치한다. 3가지 갑옷 중에서 시대가 올라가는 것은 목면피갑이다. 1809년(순조 9) 『만기요람』에도 목

〈표 4〉 무명으로 만든 갑옷의 종류

갑옷	① 목면피갑(木綿皮甲)	② 목면철갑(木綿鐵甲)	③ 면포배갑(綿布背甲)
사진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면피갑 150벌이 기록되어 있고 1813년(순조 13)『웅원필비』의 피갑(皮甲) 구조(그림 32)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19세기 초에 이미 정착되어 있던 갑주제도였다. 그런데 상대의 무기가 변화하면서 이에 대응할 보호구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이전부터 착용했던 목면피갑에 부적을 인문(印紋)하여 심리적 보호막을 형성하거나(표 4-①), 가죽갑찰을 철갑찰로 대체하거나(표 4-②), 면포를 겹쳐 배갑을 만들기도 하며(그림 33~36), 앞면에 철판을 넣어서 흉갑(그림 38)을 만들었던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기와 갑주는 즉각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급변하는 특징이 있고, 이는 국가와 집단의 존속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이처럼 조선말기에는 기존 갑주제도를 토대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융합과 변화를 시도하였다.

19세기 후반 무명으로 만든 갑주들, 즉 목면피갑주, 목면철갑주, 면포로 만든 배갑에 있는 문양은 도장처럼 나무판에 새겨 먹(墨)을 칠해 찍은 인문(印紋)이다. 투구의 감투부분과 드림, 갑옷의 앞과 뒤, 요대의 앞과 뒤에 찍힌 문양은 불교와 도교의 주술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부적이다.<sup>30)</sup> 대표적인 불교적 주문(呪文)이자 도교적 수행방법인 옴마니반메훔(唵麼拏鉢銘吽; Om Mani Padme Hum), 도교의 방위별 다섯 명산(名山)이자 장수와 보호와 회복을 의미하는 오악진형도(五嶽眞形圖), 기문둔갑(奇門遁甲)에서 사용되는 구성팔문부(九星八門符)로 이루어져 있다.<sup>31)</sup> 1882년(고종

〈표 5〉 조선후기 목면갑옷의 문양

	① 문양 없음	② 연꽃덩굴문양	③ 만자박쥐문양	④ 부적문양
갑옷				
문양				
유물 소장처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30) LaRocca, D. J.(1996), The Gods of War : Sacred Imagery and the Decoration of Arms and Armor, New York, U.S.: Metropolitan Museum of Art, p.16.

31) 이민정 · 박경자 · 안인실(2019), 조선후기 면제갑주(綿製甲冑) 문양에 대한 연구 II : 문양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복식 69(7), pp.51-71.

19) 무위영(武衛營)의 고문서에 의하면 조선시대 군영에는 갑주와 무기 뿐 아니라 이를 제작, 관리하기 위한 도구들도 보유하고 있었다. 투구를 만들거나 보관하기 위한 틀인 투구골[頭口骨], 군영이나 신분 등을 표시하기 위해 불에 달구어 찍는 도장인 낙인(烙印), 각종 구멍을 뚫기 위한 천혈기(穿穴機)가 있었다. 이외에도 1872년(고종 9)에 무위영에서 구비한 물품 중에 갑의문판(甲衣紋板) 4좌(坐)가 포함되어 있어서<sup>32)</sup> 〈표 4〉의 갑옷 문양을 찍기 위한 판이었으리라 추정된다.

목면갑옷에 도장을 찍어 문양을 나타내는 제작방식은 이전에도 존재했다. 목면피갑의 예를 들면 〈표 5〉에서와 같이 아무 문양이 없는 갑옷, 연꽃덩굴문양[蓮花唐草紋]이 있는 갑옷, 만자문 바탕 위에 박쥐가 있는 문양[卍字蝙蝠紋], 부적문양이 있는 갑옷으로 구분된다. 무명으로 옷을 만들고 가죽 갑찰을 안쪽에 댄 후 바깥쪽에서 두정으로 고정시키는 기본형 〈표 5-①〉으로 출발하여, 〈표 5-②〉나 〈표 5-③〉처럼 직물 전체에 반복문양을 인문(印紋)한 후 갑옷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는 책 표지에 무늬를 입히는 능화문(菱花紋)과 상통하며 연꽃문양이나 만자문양을 도장찍어서 면직물을 견직물의 느낌으로 변화시켰다. 무명으로 만든 갑옷에 문양을 도장찍는 전통이 있었기에 〈표 5-④〉와 같이 염원을 담은 부적을 인문(印紋)하게 되었다.

### ■ 갑주와 함께 착용한 복식, 융복과 군복

갑주 속에 입은 옷은 무엇이었을까. 의관정제(衣冠整齊)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리학적 규범이 지배하던 조선에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라도 바지와 저고리 위에 포를 입고 상투가 노출되지 않도록 건(巾)이나 관(冠)을 썼다. 그러므로 바지와 저고리 위에 바로 갑주를 착용하지 않았고 포(袍)를 갖추었다.



〈그림 50〉 조선 초기 철릭  
변수 묘 출토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51〉 융복  
『무신진찬도병』  
국립중앙박물관

32) 『武衛營各色軍器完破區別成冊』, (1882), 武衛所, 장서각 K2-3312, 壬申別備秩. 甲衣紋板 肆坐并完.

임진왜란 전에는 갑주 안에 응복(戎服)을 빙쳐 입었다. 응복은 문관과 무관 모두 응사(戎事)에 입는 옷으로, 립(笠)을 쓰고 철릭(貼裏)을 입고 광다회(廣多繪)를 매고 수화자(水靴子)를 신은 차림이다. 상황에 따라 철릭 위에 담호와 단령을 덧입어서 관복(官服)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철릭은 곧은 것의 저고리와 주름잡은 치마를 허리선에서 연결한 상의하裳(上衣下裳) 형식의 포(袍)로, 철릭, 텔릭, 첨리, 천익, 철익 등으로 썼다. 고려시대 중국 원(元) 나라로부터 도입된 철릭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널리 보급되어 응복 또는 평상복으로 여러 계층에서 입혀졌다. 조선시대 남자의 포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출토되는 것은 철릭이다(그림 50). 철릭은 시대에 따라 의와 상의 비율, 깃과 소매의 형태, 주름 처리방법 등에 변화가 있어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이중에서 의와 상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그림 50>에서 조선초기에는 의의 길이가 상의 길이와 비슷하거나 더 길다. 조선후기에는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리선이 올라가면서 의와 상의 비율이 1:2 혹은 1:3으로 상이 점차 길어진다.

조선후기 갑주의 받침옷은 군복(軍服)이었다. 1834년(순조 34) 기록을 보면 군복은 개주(介胄), 즉 갑주의 속옷(裏衣)이라고 하였으므로<sup>33)</sup> 군복 위에 갑주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 등의 궁중기록화나 의궤 반차도를 보면 갑옷의 짧은 소매 아래로 홍수(紅袖; 붉은 색 소매)가 달린 동다리가 노출되므로 갑주의 받침옷은 군복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다. 18세기에는 <그림 53>과 같이 군복과 응복이 공존하며 제도가 정리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다가 문관은 응복을, 무관은 군복을 착용하는 방향으로 정착된다. 단, 응복은 군복보다 상위 개념이었으므로 무관 당상관인 각 군영의 대장(大將)은 응복을, 중군과 장관은 군복을 착용했다.<sup>34)</sup>



<그림 52> 갑주와 군복  
『무신진찬도병』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53> 군복과 응복  
『화성원행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54>  
신태관 일가의 군복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그림 55> 군복  
안필호 조상(1913)  
육군박물관

33) 『純祖實錄』 卷34, 純祖 34年 4月 甲子.

34) 염정하(2014), 조선 후기 오군영의 군사복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67-72.

군관(軍官)과 무관(武官)은 공복(公服)을 착용해야 할 때에도 군복 위에 단령을 착용했다.<sup>35)</sup> 즉 원행할 때에는 군복만 입었으나, 왕을 측근에서 호위하거나 전쟁 등의 상황에서는 군복 위에 갑주(甲冑)를,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군복 위에 단령(團領)을 덧입었다.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군관과 무관들은 대부분의 시간동안 군복을 착용하였다.<sup>36)</sup> 일반적으로 군복은 〈그림 51〉, 〈그림 52〉처럼 머리에 전립(戰笠·氈笠)을 쓰고 협수(狹袖)나 동다리 위에 전복(戰服)을 입고 허리에는 남색 전대(戰帶)와 요대(腰帶)를 매고 수화자(水靴子)를 신은 차림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복은 신분에 따라 다른 조합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군관은 전립(戰笠)과 전복(戰服), 혹은 전립(戰笠)·전복(戰服)·협수(狹袖)를 착용하였으나, 하급군졸은 전건(戰巾)이나 호건(號巾)을 쓰고 호의(號衣)를 입었다.<sup>37)</sup>

### ■ 근대화 소용돌이 속 갑주의 운명

500년 동안 조선을 지켜온 갑주와 군복, 융복은 1895년(고종 32)에 칙령(勅令) 제78호인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이 반포되면서 사라져가고, 서양식 군복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sup>38)</sup> 근대화와 서구화의 급류 속에 조선의 전통 군사복식은 효용성을 상실하고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조선시대 갑주 유물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출토유물이 거의 없고 전세 유물도 적다. 갑옷과 투구는 염습이나 보공품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전투지에서 매립된 찰갑의 갑찰 조각만 발견될 뿐, 복식으로 출토되지 않는다. 군영 고문서를 비롯한 각종 문헌사료에는 군영마다 수백 점, 수천 점의 갑주가 기록된 반면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유물은 많지 않으며 특히 신분이 낮은 계급의 갑주는 더욱 드물다. 둘째, 전세유물도 입수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연대와 착용자가 확실하지 않은 유물이 많다. 후손이 보관하면서 대대손손 가보(家寶)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착용자가 명확하게 밝혀진 갑주 유물은 적다. 셋째, 일반적인 복식 유물과는 달리 갑주는 국내보다 국외에 소장된 유물이 많고 보존상태도 국외 소장품이 더 우수하다.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국외소재 한국갑주 유물의 입수경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조사보고서와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외박물관 소장 조선 갑주 유물은 대부분 선물·구입·경매·기증의 경로를 거쳤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빈예술사박물관 소장 갑주는 고종이 오스트리아 황제인 프란츠 요제프(Franz Joseph I)에게 선물한 것이라는 기록이 남아있고, 미국 뉴어크박물관 소장 갑주는 동아시아 철도사업을 구상하며 한·중·일을 오가던 사업

35) 『英祖實錄』 卷58, 英祖 19年 8月 己巳; 『英祖實錄』 卷101, 英祖 39年 2月 庚戌。

36) 박가영·이은주(2004), 정조시대의 군사복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한복문화 7(3), p.132.

37) 박가영(2014), 조선 후기 전복(戰服)의 용도와 착용방식, 한국복식 제32호, p.108.

38) 『高宗實錄』 권33, 32년 4월 9일(경술); 『高宗實錄』 권35, 34년 5월 15일(양력).

가 해리먼(E. H. Harriman)이 조선왕실로부터 하사받은 것이다. 조선은 1876년(고종 13) 강화도 조약 이후 서양의 국가들과 국교를 맺었고 외국사절단과 왕래하면서 은그릇 등의 왕실 물품을 선물 했으므로 이 갑주 역시 왕실에서 외국의 정부나 개인에게 선물로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sup>39)</sup> 한편,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갑주들은 독일 상인인 쟁어(H. Sänger)가 동아시아에서 사업을 하며 구매했던 다수의 한국문화재를 그라시민속박물관에 매도한 것이고, 러시아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학박물관 소장 갑주와 군복도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여행가들이 수집해서 박물관에 기증·이관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왔던 외국인들이 화려하고 그들의 눈에 신기해 보이는 갑주를 기념품이나 민속자료로 구입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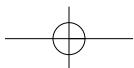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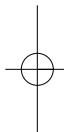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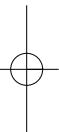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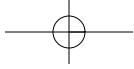
투구의 곳곳에 용과 봉황이 조각되어 있고, 갑옷의 견철과 하단 장식에도 용이 새겨져 있으며, 용(龍) 장식 중에서 5조룡이나 4조룡도 포함되어 있어 왕실의 갑주라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유물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갑옷의 안쪽에 ‘禁營(금영)’이라는 글자를 수놓아서 금위영 소속 장수의 갑옷이라고 표시하거나, 갑주함(甲冑函)에 ‘訓左別(훈좌별)’이라 새겨서 훈련도감 좌별초 소속 장수의 갑주를 보관하는 상자임을 밝혔다. 결국 서양식 군복으로 대체되면서 한순간에 효용성을 상실한 각군영의 장수급 갑주들이 대한제국 황제의 외교 선물이나 기념품 등으로 외국에 보내졌고, 재력가나 박물관에 소장되었기에 국내 소장품에 비해 양호한 보존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주관하여 진행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 새로운 유물 발굴과 조사 자료 축적으로 갑주 유물의 연대 및 착용자 감정 기준이 세밀해지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國朝五禮儀序例』, 『(正祖)國葬都監儀軌』, 『樂學軌範』, 『武藝圖譜通志』, 『萬機要覽』, 『戎垣必備』, 『武衛營各色軍器完破區別成冊』, 『御營廳贍錄』, 『軍器色重記』, 『晉書』.  
 LaRocca, D. J. (1996), *The Gods of War : Sacred Imagery and the Decoration of Arms and Armor*, New York, U.S. : Metropolitan Museum of Art.  
 국립문화재연구소 편(1999), 프랑스 국립기예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편(2004), 러시아 표트르대제인류학민족학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편(2006),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편(2013),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편(2017),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39)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편(2014), 오구라 컬렉션 :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pp.254-264.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편(2014), 오구라 컬렉션 :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편(2016), 미국 뉴어크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금종숙(2010), 조선시대 무관(朝鮮時代 武官)의 철릭(帖裏) 연구, 복식문화연구 18(5).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편(1987), 韓國의 甲冑.
- 박가영(2003),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박가영(2005), 조선시대 갑주의 제조, 학예지 12, pp.171-200.
- 박가영(2008), 조선시대 갑주 유물의 감정을 위한 현황파악과 시대구분, 복식 58(5), pp.166-177.
- 박가영(2014), 조선 후기 전복(戰服)의 용도와 착용방식, 한국복식 제32호, pp.95-127.
- 박가영(2018), 조선후기 전건(戰巾)의 착용과 제작, 한복문화 21(4), pp.69-82.
- 박가영(2019), 갑주에 반영된 복식의 유행,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박가영(2019), 조선후기 피갑(皮甲)의 구조와 특징, 복식 69(6), pp.136-158.
- 박가영(2019), 해외박물관 소장 조선후기 면갑(綿甲) 유물 분석, 복식 69(4), pp.161-180.
- 박가영 · 송미경(2013), 조선 후기 면갑(綿甲) 유물 분석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복식 63(4), pp.158-167.
- 박가영 · 이은주(2004), 정조시대의 군사복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한복문화 7(3), pp.129-143.
- 박가영 · 이은주(2009), 서애 류성룡 갑옷의 형태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 복식 59(5), pp.1-18.
- 朴齊炯 著 · 李翼成 譯, 『近世朝鮮改鑑』 1886(丙戌), 서울 : 探求堂, 1975.
- 송수진 · 흥나영(2019), 조선 후기 왕실 군복용 용보 연구, 복식 69(3), pp.77-95.
- 염정하(2014), 조선 후기 오군영의 군사복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육군박물관 편(2012), 육군박물관 소장 군사복식.
- 이민정 · 박경자 · 안인실(2019), 조선후기 면제갑주(綿製甲冑) 문양에 대한 연구 I : 문양의 분석과 복원을 중심으로, 복식 69(6), pp.113-135.
- 이민정 · 박경자 · 안인실(2019), 조선후기 면제갑주(綿製甲冑) 문양에 대한 연구 II : 문양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복식 69(7), pp.51-71.
- 이혜구 역주(2000), (한국음악학 학술총서5)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 이효진 외(2012),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경번갑 보존 및 제작기법 연구, 한국기독교박물관지 제8호, 서울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pp.110-119.







## 문양의 상징의미 고찰을 통한 조선 후기 면제갑주(綿製甲冑)의 재조명

이민정

서울대학교 박물관 객원연구원

### 목차

- 
1. 들어가며
  2. 국내외 면제갑주 유물 현황
  3. 해외에서 조사 보고된 면제갑주 문양에 대한 연구결과
  4. 면제갑주에 찍힌 문양의 종류와 의미
  5. 논의: 면제갑주에 찍힌 문양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

## 1. 들어가며

2018년 tvN에서 인기리 방영되었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첫 장면은 1871년 6월에 일어난 신미양요였다. 당대 최신 미국 군함에 설치된 대포에서 뿐어져 나오는 포격에 강화도 해안에 설치되었던 초지진, 광성진 등이 초토화되는 장면이 그려졌다. 드라마에서 조선 관군(官軍)과 급히 소집된 민병(民兵)들은 불랑기와 화승총으로 무장해 미군에 맞섰다. 이때 조선 관군은 특이한 둥근 문양이 찍힌 갑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조선 관군의 문양 찍힌 갑옷은 2008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수자기(帥字旗): 136년만의 귀환」<sup>1)</sup>에 전시된 종군사진작가 베아토(Felice Beato, 1832-1909)가 찍은 미 해군 초지진 상륙 기념사진에서 발견된다(그림 1). 사진 속에서 한 미군이 전사한 조선 관군의 어깨 위에 한 발을 올려놓고 있다. 이 자세는 당시 맹수를 잡았을 때 취했던 전형적인 자세이기도 하다. 조선군 전사자 원편에는 당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랑기가 나동그라져 있다. 갑옷을 착용한 조선군 전사자의 모습을 확대해보면, 갑옷의 문양이 보인다.



〈그림 1〉 1871년 미 해군 초지진 상륙 기념사진과 그 세부  
Felice Beato (1832-1909). 227×283mm, albumen print  
미국해군 역사재단(Naval Historical Foundation)

한편, 사진 속 갑옷과 같은 종류의 갑옷은 국내에 투구, 요대(腰帶), 엄심(掩心)이 소실된 채 갑의(甲衣) 부분만 1점 남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그림 2). 이 갑옷은 1916년(大正 5

1) 「수자기(帥字旗): 136년만의 귀환」 전시를 가능하게 한 공로자 중에 토마스 뒤버네이(Thomas Duvernay) 영남대 교수가 있다. 그는 2018년, 2019년 The Royal Asiatic Society Korea (RAS Korea)에서 신미양요 전장(戰場) 답사팀 안내를 맡기도 하였으며, 최근 *Sinmiyangyo: The 1871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eoul Selection, 2020)라는 책을 출판했다.

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조선주차군(朝鮮駐紹軍)<sup>2)</sup>으로부터 일괄 인수한 조선 전통 무기와 갑옷 품목 중 하나였다.<sup>3)</sup> 이 갑옷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군사전문박물관을 표방했던 육군사관학교 내 육군 박물관에 수탁되어 전시되었다. 이 때 '면갑' 또는 '면제배갑'이라 불렸다. 1987년 육군박물관 관장 이었던 이강칠은 『한국의 갑주』의 면갑(綿甲) 설명 부분에 “무거워서 과연 이 옷을 입고 실전에 참가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총탄을 뚫는 정도를 실험하기 위해 만든 것인지 의혹스럽다”라는 의견을 신기도 했다.<sup>4)</sup> 2008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수자기(帥字旗): 136년만의 귀환」에 전시된 「미 해군 초지진 상륙 기념사진」은 실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았던 면갑이 실제로 조선군에게 착용되었던 갑옷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림 2〉 면제갑옷의 앞면(좌)과 뒷면(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본관 53)

면갑은 2000년대 말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2010년에는 “근대에 국토 방위 역할을 수행한 군사 관련 유물로서 갑옷 발달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유물”로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459호로 지정되었다. 이때 ‘면제갑옷’이라 명명되었다.<sup>5)</sup>

- 2) 1904년 4월 3일, 일본 정부는 러일전쟁의 확전을 계기로 대한제국에 주둔한 일본군을 주차군으로 개편하고 '한국주차군'으로 명명하였다.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로 합병된 이후에는 '조선주차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18년부터는 '조선군'으로 개칭하였다.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A3%BC%EC%B0%A8%EA%B5%B0\(%E9%A7%90%E7%AE%9A%E8%BB%8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A3%BC%EC%B0%A8%EA%B5%B0(%E9%A7%90%E7%AE%9A%E8%BB%8D))>
- 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다이쇼(大正) 4년도 진열물품 청구서 물품청구서-삼혈포횡형(三穴砲橫形) 이하 194점.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docubj.do?aseq=7&group\\_nm=%EB%8B%A4%EC%9D%B4%EC%87%BC\(%E5%A4%A7%E6%AD%A3\)%204%EB%85%84%EB%8F%84%20%EC%A7%84%EC%97%B4%EB%AC%BC%ED%92%88%20%EC%B2%AD%EA%B5%AC%EC%84%9C&major=%EC%A7%84%EC%97%B4](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docubj.do?aseq=7&group_nm=%EB%8B%A4%EC%9D%B4%EC%87%BC(%E5%A4%A7%E6%AD%A3)%204%EB%85%84%EB%8F%84%20%EC%A7%84%EC%97%B4%EB%AC%BC%ED%92%88%20%EC%B2%AD%EA%B5%AC%EC%84%9C&major=%EC%A7%84%EC%97%B4)>: 문화재위원회 (2010),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록, p. 9
- 4) 문화공보국문화재관리국 편 (1987), 『한국의 갑주』, 서울: 문화공보국 문화재관리국, p. 151.
- 5) 국가등록문화재 제459호 면제갑옷 (綿製甲).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79,04590000,11&pageNo=1\\_1\\_1\\_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79,04590000,11&pageNo=1_1_1_0)>

그동안 국내에 투구, 요대, 엄심이 소실된 채 갑의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면제갑옷은 투구와 갑옷 일습을 의미하는 갑주(甲冑)라는 명칭을 획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면 갑옷에 대한 꾸준한 학계의 연구 발표와 대중서적의 발간, 언론 보도는 일반에게 면 갑옷에 대한 인식을 높히는데 기여하였다.<sup>6)</sup> 면 갑옷을 등록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 작성된 「근대군사유물 문화재 등록조사 보고서」<sup>7)</sup> 이후 박가영 · 송미경은 면제갑옷에 찍힌 문양의 형태와 배열, 문양을 찍는 도장[甲衣紋板]이 존재했었다는 사실, 유사한 문양이 찍힌 다른 갑옷의 존재(목면피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면제갑옷 소장자를 추측 할 수 있는 묵서(면제갑옷 앞길 안쪽에 위치)인 「孔君玉」에 대해서 밝혔다.<sup>8)</sup> 이듬 해 안인실은 면제 갑옷의 실증적 복원 제작에 관한 논고를 발표하였다.<sup>9)</sup>

이와 같은 면 갑옷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 증대는 해외 소장 면제갑옷 유물 조사로 이어졌다. 이 민정 · 안인실 · 박경자는 2018년 2월 14일,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갑옷과 무기 부문 학예관 도날드 J. 라로카(Donald J. LaRocca)의 협조로 면제갑옷 일습과 투구를 조사하였다. 2018년 8월, 박가영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면제갑옷 일습과 투구를, 미국 뉴욕 소재 자연사박물관에서 투구를 조사하였다.<sup>10)</sup> 연구자들의 해외 소장 면 갑옷의 실측 조사를 통해 더 이상 면 갑옷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속품과 투구가 일습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면제 갑옷'이 아니라 갑옷과 투구를 모두 포함하는 '면제갑주(綿製甲冑)' 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따라서 본 논고의 제목에서는 '면제갑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초 간행된 『만기요람』에 '목면갑주(木棉甲冑)'<sup>11)</sup>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원래 명칭으로 복원하는 작업도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제갑주의 일부인 갑의만 남은 국내에서는 갑의 외에 요대, 투구, 엄심에 찍힌 통합적인 면제갑주 문양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다. 반면, 면제갑주 일습을 소장한 해외에서는 면제갑주에 찍힌 문양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면제갑주 유물을 실측 조사한 이 민정 · 안인실 · 박경자는 면제갑주 문양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해외 연구 결과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실제 문양을 복원하고, 문양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해독하여 면제갑주에 찍혀 있는 문양이 조선 후기

6) 2010년 이후, KBS 시간여행, 〈조선시대의 방탄조끼, 면제배갑의 성능은?〉 2010-02-12.; EBS 방송, 〈역사채널 e 승자없는 전쟁〉 2013-07-05 (<http://www.ebs.co.kr/tv/show?prodId=10000&lectId=10128257>, ); KBS 천상의 컬렉션, 〈면제배갑, 뉴욕타임스에서도 다뤘던 세계 최초 방탄조끼〉 2018-11-03 등 공중파 언론매체가 면제갑옷을 조명하면서 면제갑옷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7) 문화재위원회 (2010),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록.

8) 박가영 · 송미경 (2013), 조선 후기 면갑(綿甲) 유물 분석, 『服飾』 63(4), pp. 158-167.

9) 안인실 (20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면갑(綿甲)의 복원제작에 관한 소고, 『학예지』 21.

10) 박가영 (2019), 해외박물관 소장 조선후기 면갑(綿甲) 유물 분석 -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 『服飾』 69(4), pp. 161-180.

11) 박가영 (2003),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pp. 65-66, 80-81에서는 '木棉甲'과 '木棉冑' 항목에 대해 서술하였다: 沈象圭 · 徐榮輔 (1801), 『萬機要覽』, 軍政篇 龍虎營 軍器, "木綿甲冑".

성리학적 세계관에 따른 국가적, 군사적, 우주적 문양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sup>12)</sup> 2020년 하반기 경운박물관 특별전에서 복원 재현되는 갑의, 요대, 투구 일습의 면제갑주는 이민정·안인실·박경자의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유물 실측 조사 이후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96년 12월 10일부터 1997년 12월까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전쟁의 신들: 무기와 갑옷의 신성한 문양과 장식(The Gods of War: Sacred Imagery and the Decoration of Arms and Armor)」(이하 「전쟁의 신들」) 전시에서 면제갑주 요대의 앞뒤가 잘못 착장되어 전시된 것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쟁의 신들」 전시에서 요대 착장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목면피갑에 찍힌 문양의 위치에 근거하여 이미 박가영<sup>13)</sup>에 의해 지적된 바 있으나, 문양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과 요대의 복원 과정<sup>14)</sup>에서 추가 근거들이 밝혀졌다. 면제갑주의 복원 재현은 연우 전통복식연구실 대표 안인실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다.

본 논고는 2019년 이민정·안인실·박경자가 발표한 2편의 논고를 요약·정리·보완한 것이다. 2장에서 국내외 면제갑주 유물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 해외에서 조사 보고된 면제갑주 문양에 대한 연구결과를 국내 학계에 보고하며, 4장에서 면제갑주에 찍힌 문양의 종류와 의미를 파악하고, 5장에서 문양의 의미를 종합하여 면제갑주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였다.

## 2. 국내외 면제갑주 유물 현황

국내에는 면 갑옷만 전하지만,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는 면 갑옷과 함께 그 일습인 투구와 요대가 소장되어 있으며,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과 영국 피트 리버스 박물관(Pitt Rivers Museum)에는 면 갑옷과 그 일습인 투구, 요대, 엄심이 면 갑옷에 부착된 상태로 소장되어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면제갑주의 소장국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로 전 세계에 면제갑주는 갑의 6점, 투구 6점, 요대 3점, 엄심 2점이 남아있다. 그 중 신미양요를 치른 미국에 면 갑옷 2점, 투구 4점, 요대 2점, 엄심 1점으로 면제갑주 유물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다<sup>15)</sup>.

12) 이민정·박경자·안인실 (2019a), 조선후기 면제갑주(綿製甲冑) 문양에 대한 연구 I - 문양의 분석과 복원을 중심으로 -, 『服飾』 69(6), pp. 113-135.; 이민정·박경자·안인실 (2019b), 조선후기 면제갑주(綿製甲冑) 문양에 대한 연구 II - 문양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服飾』 69(7), pp. 51-71.

13) 박가영·송미경 (2013), 위의 글.

14) '옴마니반메훔' 문양이 가슴에 오도록 입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단서는 전통적으로 요대는 착용자의 오른쪽에서 매어졌다는 사실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민정·박경자·안인실 (2019a) 참고.

15)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민정·박경자·안인실 (2019a) 참고.

면제갑주 유물 현황을 파악하면서 발견된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2017년 10월 12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프랑스 군사박물관에서 열린 「Dans la peau d'un soldat: De la Rome antique à nos jours」에 전시되었던 프랑스 군사박물관 소장 면제 갑옷이 “병인양요(1866년) 때 로즈(Roze) 제독에 의해 전리품으로 획득되었다”는 사실이다(그림 3).<sup>16)</sup> 국내에서 면제갑주의 제작 시기는 1886년 출간된 박제형의 『근세조선정감』에 근거하여 병인 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인 1866~1870년으로 추정한다.<sup>17)</sup> 프랑스 군사박물관 면 갑옷 유물의 입수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면, 면제갑주가 대원군의 총탄 방어 시험용 갑옷이 아니라 병인양요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특수한 갑옷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는 미국 뉴욕 자연사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에 소장된 면제갑주 투구의 국가 표기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다.<sup>18)</sup> 이 투구는 1927년에서 1932년 사이 미국 지리학 협회에서 기증한 투구로 유물 데이터베이스 상에 “culture: Tibetan, country: China”라고 하여 티벳 문화의 투구로 기록되어 있다. 투구 감투에 찍힌 ‘옴마니반메훔’ 문양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물의 국적 표기를 수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미국 켄터키 주 트랜실베니아 대학에 또 하나의 면제 투구가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sup>19)</sup> 이 투구는 휴 맥키 중위(Lt. Hugh McKee) 어머니가 맥키 중위의 모교였던 트랜실베니아 대학에 1950년 경 기증한 유물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맥키 중위는 신미양요에서 광성보 전투를 이끌며 가장 처음 요새의 벽을 타고 오른 군인이었으며, 그 전투에서 유일한 미군 전사자였다. 투구 외에도 불랑기, 금고기(金鼓旗: 군대에서 장군이 호령할 때 치던 금속으로 만든 북이 있는 곳에 꽂는 깃발)가 기증되었다.<sup>20)</sup> 이 유물들은 맥키 중위의 유해와 함께 전리품으로 수집되어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16) “Cette pièce a été capturée à l'automne 1866, lors de l'expédition punitive du contre-amiral Roze sur l'île de Ganghwa.” (Gallimard & Musée de l'Armée (2017), *Dans la peau d'un soldat: De la Rome antique à nos jours*, Paris: Gallimard · Musée de l'Armée, p. 233. 번역: 전명애); <그림 3>은 해당 전시를 직접 관람한 Christophe Capuano의 트위터 사진이다. Christophe Capuano @captaine\_cap am2:11, 2018-1-7 <[https://twitter.com/captaine\\_cap/status/949946482773364737](https://twitter.com/captaine_cap/status/949946482773364737)>

17) 박가영 · 송미경 (2013), 위의 글. 이 외에도 문화재위원회 (2010),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록, 박재광의 『화염 조선』 (2009), 민승기의 『조선의 무기와 갑옷』 (2004)에서도 면제갑주의 제작 시기를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인 1866~187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18) 미국 뉴욕 자연사박물관의 면제갑주 투구의 국적 표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Culture: Tibetan / Country: China <[https://anthro.amnh.org/anthropology/databases/common/image\\_dup.cfm?catno=70%2E0%2F%203544](https://anthro.amnh.org/anthropology/databases/common/image_dup.cfm?catno=70%2E0%2F%203544)>

19) 신미양요를 연구한 토마스 듀버네이 교수가 트랜실베니아대학 도서관에 면제갑주 투구가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그가 운영하는 신미양요 홈페이지(<http://www.shinmiyangyo.org/old/>)에 그가 2011년 직접 트랜실베니아대학 도서관에 방문하여 찍은 유물 사진이 공개되어 있다. 아래는 면제갑주의 투구를 확인할 수 있는 트랜실베니아대학 도서관 유물 아카이브 링크이다. <https://transy.pastperfectonline.com/webobject/F4EE929B-9CAE-4196-939A-299137121115>

20) 토마스 듀버네이 교수는 맥키 중위의 유품 기증 관련 기사를 맥키 중위의 증손자에게서 입수하였다. 이 기사는 1950년대 Lexington Morning Herald에 실렸다.

### 3. 해외에서 조사 보고된 면제갑주 문양에 대한 연구결과

면제갑주가 최초로 해외에 소개된 것은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에서 1893년 출간된 『스미스소니언 재단 미국 국립박물관 베나드 알렌 주이 코리안 컬렉션』(이하 『베나드·알렌·주이 코리안 컬렉션』)<sup>21)</sup>에서였다.<sup>22)</sup> 이 책에 실린 면제갑주(그림 4)는 당시 스미스소니언연구소 차관보로 재직했던 구드(George B. Goode, 1851~1896) 박사의 개인 소장 유물로서 이 책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sup>23)</sup> 『베나드·알렌·주이 코리안 컬렉션』을 작성한 스미스소니언박물관 소속 민속학자 휴는 면제갑주의 구성 품목을 coat, helmet, wide belt, plastron으로 명명하였고, 재료는 거친 면직물이라 하였으며, 노란색 염료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문양에 대해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염원하기 위한 산스크리트 다라니(Sanskrit dharani)를 투구와 갑의에 찍었다고 하였다.

이후 1930년대 미국의 무기수집가였던 조지 C. 스톤(George C. Stone, 1859~1935)이 그의 수집품을 정리한 책에 면제갑주가 포함되었다.<sup>24)</sup> 경매를 통해 조선의 면제갑주를 소유하게 된 스톤은 면제갑주를 유럽의 브리간딘(brigandine)<sup>25)</sup> 유형의 갑옷으로 소개했다.<sup>26)</sup> 스톤이 소유한 면제갑주는 다른 무기와 갑옷 유물들과 함께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1960년대 영국의 군복 연구자인 헨리 러셀 로빈슨(H. Russell Robinson, 1920~1978)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소장된

21) Hough, Walter (1893), *The Bernadou, Allen and Jouy Corean collection in the U.S. National Museum*, Washion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베나드·알렌·주이 코리안 컬렉션은 해군 무관 베나도(John Bernadou, 1859~1908), 의료 선교사이자 대한제국 시기 주한 미국 공사였던 알렌(Horace Allen, 1858~1932), 조류학자 주이(Pierre Louise Jouy, 1856~1894) 등 3명이 1880년대 초반 한국에서 수집한 민속품(미술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내용을 분석한 기록이다. 스미소니언 재단 민족학박물관 소속 민속학자 휴(Walter Hough)는 1891년 작성된 수집품 보고서를 토대로 2년에 걸쳐 연구 분석 작업을 한 후 1893년 이 책을 완성하였다.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디지털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https://archive.org/details/bernadouallenjou00houg> (손영옥, 2016,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 소장 베나도·알렌·주이 코리안 컬렉션에 대한 고찰, 민속학연구, 38, p. 35에서 재인용)

22)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Department of Anthropology Collection) 소장 면제갑주는 한국국제문화협회 편(1989), 『미국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서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실려 국내에 보고된 적이 있다. 2019년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서는 면제갑주의 유물 사진을 다시 찍어 올렸다. 투구와 갑의의 개별 사진에서 전·후·측·좌·우면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의와 투구, 요대를 같이 배치하여 찍은 사진에서 문양이 많은 부분을 갑의의 앞으로 추정하여 배치하는 등 오류가 발견된다. 본 전시를 통해 복원된 면제갑주의 올바른 착장 사진을 송부하여 착장·배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http://collections.si.edu/search/detail/edanmdm:mnhanthropology\\_8334972?q=armor&fq=CSILP\\_5&fq=data\\_source%3A%22NMNH+-+Anthropology+Dept.%22&fq=place%3A%22Korea%22&record=2&hlterm=armor&inline=true](http://collections.si.edu/search/detail/edanmdm:mnhanthropology_8334972?q=armor&fq=CSILP_5&fq=data_source%3A%22NMNH+-+Anthropology+Dept.%22&fq=place%3A%22Korea%22&record=2&hlterm=armor&inline=true)>

23)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유물카드에 의하면 구드는 1887년 5월 3일 이 유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구드의 사후 구드 부인에 의해서 1902년 스미스소니언박물관에 기증되었다.

24) Stone, George Cameron (1999[1934]), *A Glossary of the Construction, Decoration and Use of Arms and Armor: in All Countries and in All Times* (Dover Military History, Weapons, Armor). NY: Dover Publications.

25) 브리간딘(brigandine): 미늘을 안쪽에 숨기고 바깥에서 리벳으로 고정시키거나 직조된 여러 겹의 천을 포개어 만든 갑옷.

면제갑주가 “도장이 찍힌 여러 겹의 삼베로 만든 소매가 없는 조선 보병의 갑옷”이며, 넓은 허리띠가 있으며, 투구의 형태는 몽골 것과 유사하다고 분석하였다.<sup>27)</sup>

1996년 12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개최된 「전쟁의 신들」 전시는 면제갑주에 찍힌 문양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도날드 J. 라로카는 면제갑주를 힌두교, 불교, 신토(神道), 기독교, 이슬람, 시크교 등 다른 종교성을 띤 갑옷과 무기류와 함께 전시하면서, 면제갑주에 찍힌 문양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갑의의 앞과 뒤 허리 아랫부분, 어깨부분, 그리고 투구의 양쪽 옆 드림과 뒷 드림에 찍혀있는 문양은 오악문양이다. 오악은 우주의 평화와 안정성을 유지하고 인류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오악은 각각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의 방위, 그리고 그곳에 위치한 명산과 관련되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악을 상징하는 기호는 약간씩 달라졌다. 부적으로서, 그 기호들은 갑옷에 장식되어 특정한 보호력을 갖들게 한다. 동악은 장수(長壽)를, 남악은 적이나 불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중악은 피로로부터의 회복을, 서악은 칼로 인한 자상으로부터의 보호를, 북악은 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sup>28)</sup>

라로카는 요대에 찍힌 문자 부적 문양을 ‘다섯 개의 기둥[오주(五柱)]’으로 인식하고, 이 부적이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다양한 피해나 불운을 막아주는 의미를 지녔다고 하였다. 요대와 투구에 찍힌 6개의 문자 형태의 문양에 대해서는 “천수관음(千手觀音, Ushnishavijaya)을 부르는 진언(다라니)”으로 설명하였다. 천수관음을 부르는 육자진언의 다른 말이 ‘옴마니반메훔’이다. 그는 면제갑주에 찍힌 문양 연구를 통해 면제갑옷을 “불교와 도교 상징 문양이 찍힌 천 소재의 갑옷(Fabric armor with Buddhist and Taoist symbols)”이라 명명하였다(그림 5)。



〈그림 3〉  
프랑스 군사박물관 소장  
Armure de guerre  
Coréenne (©Christophe Capuano Twitter, 2018)



〈그림 4〉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소장  
Ancient Corean Armor (Hough, 1893)



〈그림 5〉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Fabric Armor and Helmet with Buddhist and Taoist symbols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6)



〈그림 6〉  
영국 빅 러버 박물관 소장  
Footsoldier's padded armour (Chung, 2011)

이후 면제갑주 문양에 대한 연구는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고고 인류학 박물관인 팟 리버스 박물관(Pitt Rivers Museum) 무기 전문 연구원 앤디 밀즈(Andy Mills)에 의해 진행되었다.<sup>29)</sup> 팟 리버스 박물관에는 영국 런던 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 소속 위트미 목사(Samuel James Whitmee, 1838-1925)에 의해 1884년에 기증된 면제갑주(그림 6)가 소장되어 있다.<sup>30)</sup> 밀즈는 면제갑주의 문양에서 고대 이집트 기념비 등에 왕의 이름을 둘러싼 원형의 장식 테두리인 카르투슈(cartouches)를 연상했다. 그는 가슴과 투구에 반복되는 문자 일단은 불교 진언인 '옴마니반메훔'을 나타낸다고 하였다.<sup>31)</sup> 팟 리버스 박물관의 면제갑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26) Fabric Armor and Helmet with Buddhist and Taoist symbols (Accession No.: 36.25.10a?c) 유물의 Provenance 참조.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24009>>: "In the earlier armor of this type the strengthening pieces were always put on the outside, later they were often riveted or quilted between layers of cloth or leather. This type of armor is called brigandine and was largely used in Europe from the 10th to the 16th century, at first for war and later as light armor. In China it has always been the most used form for the better armor. Where the art of weaving was known, armor made of pads covered with cloth, or of several thicknesses of cloth quilted together, was used even after scale armor was given up." (Stone, 앞의 글, 621/13833)
- 27) "In the G.C. Stone Collection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are two interesting examples of nineteenth-century munition armours...The other armour, for a foot soldier, is entirely of padded hemp cloth with printed devices. The helmet, of Mongolian shape, is strengthened with strips of iron and the usual peak and the body armour is sleeveless padded cuirass with a wide overbelt." (Robinson, H. Russell (1965), *Oriental Armour (Dover Military History, Weapons, Armor)* (Kindle DX version). Retrieved from Amazon.com 2371/5372)
- 28) "The most prominent decorative feature of this armor is the series of five Taoist symbols stamped in ink at the front and rear of the skirts, at the shoulder blades of the tunic, and on the earflaps and neck flap of the helmet. These represent the Wu-yueh(Five Mountains), which were revered as having the power to maintain universal peace and stability and to influence the destiny of humanity. Each symbolic mountain was associated with one of the five directions—North, East, West, and Central—and with a particular existing mountain....."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6), *The Gods of War: Sacred Imagery and the Decoration of Arms and Armor*.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16.)
- 29) Chung, Minh (2011). *Korean Treasures: Rare Books, Manuscripts and Artefacts in the Bodleian Libraries and Museums of Oxford University*. Oxford: Bodleian Library, University of Oxford. pp. 118-119.
- 30) Pitt Rivers Museum Collection, *Footsoldier's padded armour* (1884.31.33). <<http://web.prm.ox.ac.uk/weapons/index.php/tour-by-region/asia/asia/arms-and-armour-asia-76/index.html>>
- 31) "The chest, forehead, kilt, and satchel of the suit are printed with woodblocks. Most of the characters or symbols in the cartouches have yet to be deciphered, but a recurring set of characters on the chest and helmet appear to present the Buddhist mantra Om mani padme hum. This mantra has a wide variety of translations and is often associated with Avalokitesvara(Kwanseum, 觀世音), a Mahayana Bodhisattva common across Northeast Asia that was said to embody compassion and healing. The mantra was probably a talisman against harm and to speed the healing of wounds. The script is not Chinese or Korean but appears to be corrupted Tibetan script." (Chung (2011), 위의 글.)

캔버스지 직물이 여러 겹 겹쳐진 이 갑옷은 조선군에 의해 16세기 후반부터 입혀진 스타일로, 이 갑옷은 19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성근 직물은 당시 여성들이 손으로 짠 것으로, 농촌 지역의 양민(良民) 계급으로부터 징집된 보병들에 의해 착용되었다. 이 갑옷에는 돌배나무 도장 문양들이 찍혀있다. 한자어 '옴마니반메훔'이 가슴과 투구에 쓰여 있는데, 이를 대강 해석하면, "보아라! 깨달음의 보주가 연꽃 안에 있다!"이다. 이 일반적인 불교 진언은 자비의 여신 관음보살에게 바치는 것이다. 갑옷 몸판 부분과 세 가닥의 투구 드림에 찍힌 문양은 도교적인 오악 문양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천 소재의 갑옷은 매우 드물며, 전 세계의 박물관에 몇 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앞서 설명한 2017년 프랑스 군사박물관에서 열린 「Dans la peau d'un soldat: De la Rome antique à nos jours」에서는 면제갑주 문양에 대해 “검은 먹으로 찍은 도장 문양[印章]이 도교에서 사용되는 오악(五嶽) 문양을 상기시킨다”고 설명하였다.<sup>32)</sup>

해외에서 조사 보고된 면제갑주 문양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투구와 요대, 엄심에 찍힌 반복되는 문자 일단(一團)을 '옴마니반메훔'으로 보았다. 갑의에 찍힌 원형 문양들과 투구 드림에 찍힌 문양은 도교적 오악(五嶽)을 상징하는 문양이라 설명하였다. 그러나 갑의에 찍힌 문양 중 어떤 문양이 어떤 방위를 나타내는 지는 상세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한 요대에 찍힌 기둥 형상으로 표현된 부적 문양에 대해서는 해독하지 못했다.

#### 4. 면제갑주에 찍힌 문양의 종류, 유래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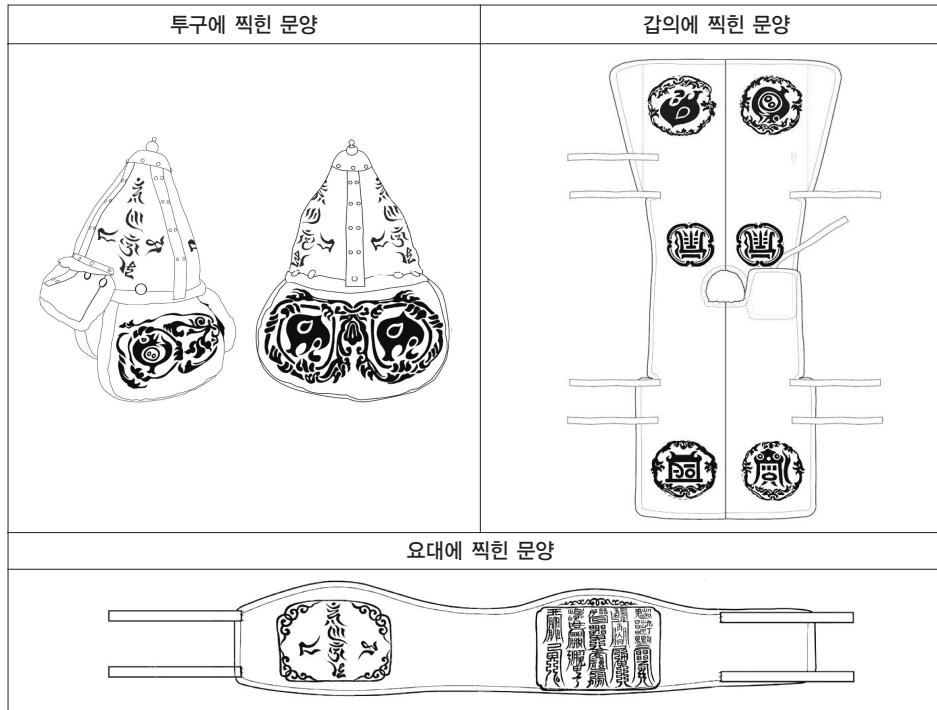
〈표 1〉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면제갑주 유물 조사자를 통해 문양을 복원한 후, 면제갑주 도식화에 문양을 배치한 표이다.

##### 1. 옴마니반메훔(Om Mani Padme Hum) 문양

면제갑주에 찍힌 옴마니반메훔 문양은 장식 테두리가 유무에 따라 두 가지 형태가 있다(그림 7). 장식 테두리가 있는 옴마니반메훔 문양은 요대의 앞에 찍혀있다. 영국 펫 리버스 박물관과 스미소니언박물관에 소장된 면제갑주 유물의 경우에는 엄심이 추가되어 있는데, 엄심에 장식 테두리가 있는 옴마니반메훔 문양이 찍혀있다. 장식 테두리가 없는 옴마니반메훔 문양은 투구 감투 부분에 모정에서 내려오는 4개의 근철이 나눈 4분면마다 찍혀있다.

옴마니반메훔 문양은 〈그림 8〉에 병기한 것과 같이 각각의 다라니 문자가 하나의 음을 나타내고 있

32) "Les cachets imprimés à l'encre noire évoquent les Wu-yüeh, les cinq montagnes protectrices du taoïsme." (Paris, Musée de l'Armée (2017), 앞의 글, p. 233, 번역: 전명애)



〈표 1〉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면제갑주 유물 조사를 통해 복원한 문양을 도식화에 배치한 모습 (연구자 작성)

다. 음마니반메훔은 가운데 ‘음’에서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며 배치되었고, 가장 마지막 문자인 ‘훔’은 가장 윗 중앙에 위치해있다. 다라니는 범자(梵字) 중 주로 경전을 적는 데 쓰인 성스러운 문자라는 의미의 실담(悉曇, Sid-dham) 또는 브라흐미 문자이다. 음마니반메훔은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지혜와 자비를 갖춘 본존인 관세음보살의 보호(寶號)로서 다라니를 읽는 음을 그대로 사용한 명칭이다. 육자대명주(六字大明呪),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 육자진언이라고도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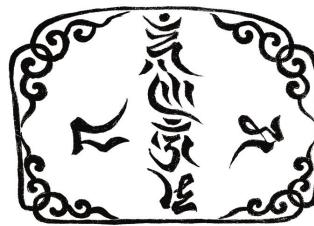
음마니반메훔은 가장 대표적인 불교적 주문으로 인도에서 7세기 중엽에 성립되어 관세음 신앙이 티베트에 널리 전파된 11세기 초에 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33)</sup> 불교는 진언이라는 상징 방법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려 하였고, 진언은 청각을 통해 심리적 진동을 일으키며, 이 심리적 진동이 깨달음의 경지를 체험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불교에서 진언 수행의 발전적 전개는 대승불교를 거쳐 밀교에 이르러 정점을 이루었다. 음마니반메훔은 대표적으로 ‘우주에 충만하여 있는’ (Om), ‘지혜’ (mani)와 ‘자비’ (padme)의 덕성이 ‘지상의 모든 존재에 그대로 실현될지라’ (Hum)는 문자적 의미가 있으며, 호격의 형태를 가짐으로서 문자 하나하나에 본존의 의미를 함께

33) 김무생 (1999), 육자진언의 상징 의미, 『密敎學報』, 1(1), pp.1-27.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옴’ 자를 관하면 지혜 바라밀을 성취하고, ‘마’ 자는 선정 바라밀을, ‘니’ 자는 지계 바라밀을, ‘반’ 자는 정진 바라밀을, ‘메’ 자는 보시 바라밀을, ‘훔’ 자는 인욕 바라밀을 각각 성취할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문자에 비로나자불,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 금강보살을 대입시키거나, 제천, 아수라, 인간, 축생, 아귀, 지옥을 의미한다고 하여 이 여섯 문을 닫는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 이 주문을 반복염지하면 연화보살에게 귀의하여 극락왕생하고 만선 만행의 승행이 된다고 한다.



특구에 찍힌 음마니반메훔 문양  
(10.27×16.54cm)



요대에 찍힌 음마니반메훔 문양  
(28.41×19.76cm)



〈그림 7〉 투구와 요대에 찍힌 음마니반메훔 문양

〈그림 8〉 음마니반메훔 (29×21.5cm) (김민기, 1987)

옴마니반메훔은 대표적인 불교 주문이지만, 중국에 들어와 도교에 흡수되어 10세기 말 이후 하나의 도교적 수행법으로 성립된다.<sup>34)</sup> 중국의 도교는 자연, 사회, 인간을 동일한 근원에 동일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본 상호교감의 거대한 이론체계이다.<sup>35)</sup> 도교에서는 인간을 도(道), 기(氣), 음양, 오행이 존재하는 작은 우주로 인식하며, 인간의 삶은 기(氣), 정(精), 신(神)이 화생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기, 정, 신을 지키고 토납(吐納: 입으로 묵은 기운을 내뿜고, 코로 새로운 기운을 들이마심), 호흡, 정좌, 연양 등의 수련을 하여 생면의 본원을 인간의 단전에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도교적 수련법을 담은 책인 『성명규지(性命圭旨)』에는 「관음밀주도(觀音密呪圖)」〈그림 9〉라 하여 ‘옴마니반메훔’ 주문을 외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국 도교의 발상지 사천성 청두시에 위치한 도교 사원 천룡사(天龍寺)에서는 음마니반메훔 주문을 외우는 도교적 수련이 행해지고 있다. 도교적 수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6)</sup>

34) Jackowicz, Steve (2013), Om Mani Padme Hum in Daoist Revision, *Journal of Daoist Studies 6*,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203-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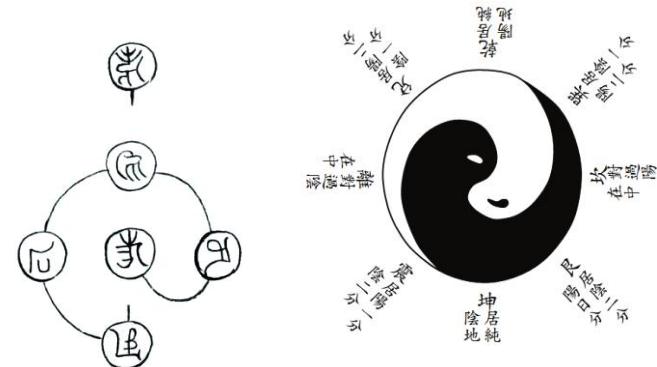
35) 꺼 자오꽝 (1993[1988]), 『道教와 中國文化』 (번역 심규호), 서울: 동문선.

36) Jackowicz (2013), 위의 글.

첫 번째 음인 ‘옴’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는 관음을 시각화합니다. 관음은 눈과 귀를 뜨게 합니다. 마음은 의식이 놓여져 있는 단전의 중심에 놓여있습니다. 수련자는 이제 울림을 왼쪽으로 확장시켜 두 번째 음인 ‘마’를 읊조립니다. 몸의 왼쪽은 양(陽)과 과거와 관련 있습니다. 수련자는 과거 그의 행적을 되돌아보며 그에 반응하고 편견 없이 또렷하게 바라봅니다. 수련자는 세 번째 울림인 ‘니’를 단전의 위쪽 중심으로 옮겨옵니다. 여기에서 수련자들은 기(氣), 정(精), 신(神)의 성공과 실패를 편견 없이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울림인 ‘반’은 오른쪽으로 옮겨옵니다. 몸의 오른쪽은 음(陰)과 미래와 관련 있습니다. 이 때 수련자들은 감응의 명학성을 그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옳은 행동이나 잘못된 선택을 살펴보기 위해 확장합니다. 단전의 아래쪽 중심으로 이동하여 다섯 번째 울림인 ‘메’를 읊조립니다. 여기에서 감응은 몸과 기저의 욕구를 바라봅니다. 수련자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신체적 자아로서의 본능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마지막 음절인 ‘훔’을 신체의 모든 구멍으로 발산하면서 에너지를 모든 방향으로 확산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련자는 마음, 과거, 정신, 미래, 그리고 몸을 하나로 만드는 공식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변화를 외부의 현상학적 세상으로 연결하려는 발산으로서 무한대로 확장시킵니다.



〈그림 9〉 『성명규지(性命圭旨)』에 수록된 관음밀주도[觀音密呪圖]



〈그림 10〉 《주자어류(朱子語類)》의 태극도

면제갑주에 찍힌 옴마니반메훔 문양(그림 7)을 살펴보면, 옴마니반메훔 문양이 단순히 원형이나 일자로 시문된 것이 아니라 도교적 수행 방법의 순서대로 가운데 중앙에서 시작되어 시계반대방향으로 돌고난 후 위에 이르러 끝나도록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Jackowicz는 음절이 이동하는 방향이 초기 태극도의 모습과 유사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림 10〉은 송대(宋代) 주희(朱熹, 1130 ~ 1200)의 어록을 모은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설명하고 있는 태극도로 선천도, 음양어태극도라고도 한다. 물고기 모양의 두 기운이 교감하여 만물을 화생하는 상생 순원의 원리를 담고 있다.

## 2. 오악진형도(五嶽眞形圖) 문양

투구 뒷드림과 양쪽 옆드림, 그리고 갑의에 찍힌 다섯 종류의 원형 문양은 모두 오악진형도(五嶽眞

形圖)이다.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큐레이터 라로카는 이 문양이 도교의 오악(五嶽)문양임을 밝히면서 동악(東嶽)은 장수(長壽)를, 남악(南嶽)은 적이나 불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중악(中嶽)은 피로로부터의 회복을, 서악(西嶽)은 칼로 인한 자상으로부터의 보호를, 북악(北嶽)은 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하였다.<sup>37)</sup>

오악이란 『서경(書經)』의 순전(舜典)에 나오는 개념으로 중국의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명산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經史編) 2 도장총설(道藏總說)에는 『오악진형도(五岳眞形圖)』가 황제(黃帝)가 산에 가서 몸소 오악 지형의 형상을 그린 것이라 쓰여 있다. 도교 서적(道書)에는 천지개벽 시에 도교의 교주인 태상노군(太上老君)이 동방에서 벌하는 기의 형상이나 뱀처럼 구불구불한 문자 닮은 형상이 된 지상의 산악, 강물의 모양 등을 공중에서 본 모습을 영사(靈寫)한 것이라고 쓰여 있다. 오악은 3세기 중반에서 5세기 초 중국 진(晉) 대에 도교가 흥성하면서, 신선이 사는 곳으로 간주되며 도교의 신화전설과 결합하기 시작했다. 중국 동진(東晉) 때의 도교 이론가 갈홍(葛洪, 283~343?)은 태산, 항산, 숭산, 형산, 화산을 그리고, 그 산에 살고 있는 귀신들을 소개한 무서(巫書)였던 『오악진형도』를 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비적(祕籍)이라 칭했다.<sup>38)</sup> 그 그림을 차고 다니면 사악한 요귀와 역귀를 막을 수 있고, 정신이 안정되고 오래 살 수 있으며, 온갖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고, 오악 명산을 주유할 수 있었다. 갈홍은 『침중서(枕中書)』를 통해 오행설의 바탕 위에 오악을 기준의 오제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신화 전설 계통을 만들어냈다.<sup>39)</sup>

목(木) 동방(東方) 청(青) 태호(太昊) 동악(東嶽) 태산(泰山)
화(火) 남방(南方) 적(赤) 축융(祝融) 남악(南岳) 형산(衡山)
금(金) 서방(西方) 백(白) 금천(金天) 서악(西嶽) 화산(華山)
수(水) 북방(北坊) 흑(黑) 전우(顚頊) 북악(北嶽) 항산(恒山)
토(土) 중앙(中央) 황(黃) 현원(軒轅) 중악(中嶽) 숭산(崇山)

서궁의 『고려도경』에도 송나라 사신들이 바다를 건너 고려에 오기 위해서 오악진형(五嶽眞形)을 준비했다는 기록이 있다.

28일 경진일 하늘이 맑았다. 오전 6시쯤[卯刻] 8척의 배가 동시에 출발하였는데, 정사와 부사는 조복(朝服)을 갖춰 입고 두 명의 도관(道官)과 함께 궁궐을 향하여[望闕] 두 번 절하고[再拜]하고, 어전(御前)에서 내린 신소옥청구양총진부록(神霄玉清九陽總眞符錄)과 풍사용왕첩(風師龍王牒), 천조직부인오옥진형(天曹直

37)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6), 앞의 글.

38) 꺼 자오광 (1993[1988]), 앞의 글.

39) 전인초 (2008). 오악의 신화전설, 『인문과학』 88. pp. 1-28.

符引五獄眞形)<sup>40)</sup>, 그리고 지풍우(止風雨) 등 13부적(符)를 던졌다. 이 일을 마친 후 뜰범(篷)을 펼치고 나아가 적문(赤門)을 지났다.<sup>41)</sup>

〈그림 11〉는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 · 山川典 · 第八卷에 수록된 오악진형도(五嶽眞形圖)이다.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은 1700년에서 1725년 사이 청 4대 황제인 강희제의 칙령으로 완성된 10,000권 규모의 백과사전이다. 『고금도서집성』에 수록된 오악진형도를 통해 18세기 초반 중국에 존재하였던 오악진형도 문양의 형태와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알 수 있다.

19세기 초 일본에서도 오악진형도가 발견된다. 에도 시대의 서민 사회에서는 계 조직인 ‘고’(こう, 講)가 발달하여 ‘고’가 통행증 발급 요령,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절차, 여행에 필요한 물품, 숙박시설의 예약 등 모든 편의를 봐주었고, 서민들은 여행 안내서를 보면서 참배나 등산에 필요한 물품을 갖추었다고 한다. 이 때 만들어진 여행안내서의 하나가 야스미 로안(八隅蘆菴)이 1810년에 만든 『여행용심집(旅行用心集)』이다.<sup>42)</sup> 이 책자에 오악진형도가 수록되어 있다(그림 12)。



〈그림 11〉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 方輿彙編 · 山川典 · 第八卷에 수록된 오악진형도(五嶽眞形圖)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mperial\\_Encyclopaedia\\_-\\_Mountains\\_and\\_Rivers.\\_-\\_pic010\\_-\\_%E4%BA%94%E5%B6%BD%E7%9C%9F%E5%BD%A2%E5%9C%96.sv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mperial_Encyclopaedia_-_Mountains_and_Rivers._-_pic010_-_%E4%BA%94%E5%B6%BD%E7%9C%9F%E5%BD%A2%E5%9C%96.svg))



〈그림 12〉『여행용심집(旅行用心集)』(八隅蘆菴, 1810)에 수록된 오악진형도  
© Aiko Uno (<https://komonjyo.net/ryokouyoujinsyu04.html>)

오악진형도 문양은 현대 한국인에게 생소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문양이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로 알려진 박지원은 『열하일기』 「일신수필(駟訊隨筆)」에서 오악도 두루마리를 등에 매고 있는 도사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일신수필은 심양을 떠나 북진(北鎮)에서 출발하여 만리장성의 동쪽 끝 관문인 산해관(山海關)에 이르기까지 7월 15일 시작하여 23일 사이의 9일 동안의 여행 기록이 담긴 부분이다.

4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번역에 오류가 발견된다. 오악(五嶽)이 ‘오옥(五獄)’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41) 박지원 (1780), 『熱河日記』. “卷第三十四 海道一. 二十八日庚辰, 天日清晏. 卯刻, 八舟同發, 使副具朝服, 與二道官, 望闕再拜, 投御前所降神霄玉清九陽總眞符籙, 幷風師龍王牒, 天曹直符引五嶽眞形, 與止風雨等十三符, 訖, 張?而行, 出赤門.”

42) 심경호 (2010-08-02), [심경호 교수와 함께 읽는 한문고전] ⑩ 포박자(抱朴子) I : 오악진형도 부적을 넣은 도교 사상의 보고, 『주간조선』, 2116호.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ew.asp?nNewsNumb=002116100023>>

길에서 도사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짹을 지어 시장 골목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구걸한다. 그 중 하나는 머리에 구름 무늬를 놓은 검은 사로 만든 모난 것을 쓰고, 몸에는 옥색 추사로 지은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긴 도포와 푸른 항라 바지를 입고, 허리에는 붉은 비단 띠를 띠고 발에는 붉고 모난 비운리를 신고, 등에는 옛 참마검(마귀를 베는 칼)을 지고 손에는 죽간을 들었는데, 흰 얼굴과 삼각 수염에 미목이 헌칠하다. 또 하나는 머리에 두 갈래 뿔상투를 짜고 붉은 비단을 감았으며, 몸에는 소매가 좁은 푸른 비단 저고리를 입고, 어깨에는 벽려를 걸치고, 두 무릎 위에는 호피를 대었으며, 허리에는 홍단 넓은 띠를 띠고 발에는 청혜를 신고, 등에는 비단으로 꾸민 오악도의 족자를 지고 또 허리엔 금호로병을 찼으며, 손에는 도서 한 갑을 들었는데 얼굴은 희고 가냘프다. 또 하나는 머리를 말아서 어깨에 척 걸치고 금테를 둘렀으며, 몸은 검은 공단으로 지은 소매 넓은 장삼을 입고, 맨발인 채 손엔 붉은 호로병을 들었다. 붉은 얼굴에 고리눈이요, 입 속으로 주문을 외면서 간다. 저자 사람들의 기색을 살피건대 모두 그들을 싫어하는 모양이다.

박지원은 정조 4년(1780)에 청 황제의 진하사절단을 따라 압록강을 건너 성경(盛京)(현재 심양), 연경(현재 북경), 열하(현재 하북성(河北省)) 등을 여행하면서 기행문을 작성하였다. 박지원 일행은 1780년 7월 22일에 관제묘(關帝廟, Guandi Temple, 관우의 영(靈)을 모시는 사당)(랴오닝 성 후루다오 시 쑤이중 현에 위치) 예폐(禮幣)를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며 제비를 뽑아 길흉을 점쳐보기도 하였다. 박지원은 요령 관제묘의 장려함이 요동보다 낫고 매우 영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록하기도 하였다. 박지원이 도사들을 본 것도 이 부근이었다.

나비를 잘 그려 '남나비'라는 별명까지 얻은 조선후기 대표적 화가 일호(一豪) 남계우(南啓宇, 1811~1890)는 숙종 때 소론의 거두이자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의 5대손으로, 집안에서 내려오는 광해군, 인조, 현종 대의 서간문(書簡文)을 모아 책을 만들 때 표지 안쪽에 오악진형도를 모사해 그려 넣었다(그림 13). 그림 왼편에 쓰인 글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오악진형(五嶽眞形)에 대해 그 비밀스러움을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모양을 다르게 그린 것은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다. 오행(五行)에 의거하여 그림을 표현하였고, 각각의 그림은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고 성스러운 명산(冠嶽鎮)을 간단하게 그렸다.

20세기 한국 것으로 추정되는 『도장경오악진형도(道藏經五岳眞形圖)』 · 『경배오악형도(鏡背五岳形圖)』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글 지문이 있고, 각 문양 옆에 산의 이름이 병기되어 있어 문양별로 상징하는 산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그림 14). 〈그림 14〉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도장경오악진형도』와 왼쪽 상단에 위치한 『경배오악형도』는 오악의 배치는 다르지만, 병기를 확인해보면 동일한 문양이면 그것이 상징하는 산이 일치한다.

조선 후기의 별전(別錢)(그림 15)에도 오악진형도 문양이 사용되었다. 앞면에 '五嶽眞形圖' 한자 가, 뒷면에 오악진형도 문양이 압인(壓印)되어 있다. 특히 앞면 글자부분은 칠보로 장식하기도 했다. 별전은 원래 주전서(鑄錢署)에서 동(銅)의 순도와 무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삼아 만들었던



〈그림 13〉 오악진형도황당(五岳眞形圖煌堂)  
규장각 소장, c. 19th century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그림 14〉 도장경오악진형도(道藏經五岳眞形圖)  
경배오악형도(鏡背五岳形圖)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c. 20th century  
(<https://www.nl.go.kr/korcis/>)

주화였는데, 이것이 인기를 끌자 왕실이나 사대부 계급에서 청하여 여러 가지 문양을 넣어 주조하였다. 별전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있는 장식품으로 일종의 애완을 위한 호부(護符)였다.<sup>43)</sup> 화폐수집가들의 경매 사이트인 화동옥션에서 조선 후기의 오악진형도 별전이 수차례 경매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궁중 베갯모 수본에도 오악진형도 문양이 남아있다(그림 16).<sup>44)</sup> 조선 후기에 오악진형도 문양이 별전 또는 베갯모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사대부가와 궁중에서 오악진형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신묘함을 머리맡에 놓인 베개를 통해 지니고자 했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오악진형도 문양은 한국 민화에 면면히 살아남아 오대 명산 문양으로 기록되었다.<sup>45)</sup> 민화에서는 각 오악 문양들을 흑, 적, 황, 청, 백색의 색상으로 표현하였다. 20세기 초 중국에서 제작된 붓 주머니에서 색실로 자수된 오악진형도 문양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17). 이 때 동악 문양이 청색으로 자수되어야 오방과 오색이 일치하나, 흑색으로 자수되어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북악 문양이 동쪽에 위치하며 청색으로 자수되어 있다. 이는 오류로 볼 수도 있으나, 자수본에서 동악 문양이 북쪽에 배치되어 도안됨에 따라 문양 자체가 가진 방향성 보다는 방향이 지닌 색의 의미가 더 강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자수 색상이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부적 수집 및 연구에 앞장섰던 김민기는 1958년 전북 전주시 남고사에서 남악

43) 김창호 (2014), 별전(別錢).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149>)

4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 유물번호 창덕 18456-6, 18456-8.

45) 윤열수(2000), *Korean art book 7 민화 II*. 서울: 예경, p. 835.



(앞)

〈그림 15〉 오악진형도 문양이  
압인(壓印)된 별전  
(지름, 37.0 × (두께) 2.4mm  
(<http://www.hwadong.com>)



(뒤)



〈그림 16〉 오악진형도 베갯모 본,  
12.5×12.6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그림 17〉 오악진형도 자수, Silk,  
30.8×18.5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국립중앙박물관, 2013)

어부와 중악어부를 수집하였다.<sup>46)</sup> 그는 남악어부〈그림 18〉는 ‘免傷害火災’을 위한 것이며, 중악어부〈그림 19〉는 ‘巨萬財貨’을 가져다주는 부적이라 설명하였다. 중악어부은 거만(巨萬)의 부(富)를 이뤄주는 부적으로 현대 한국 무속인 사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김민기는 화산(華山)을 의미하는 서악어부도 수집하였으나 이를 ‘석류부’〈그림 20〉라 명명하고 아들을 순산하려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기록하였다. 〈그림 21〉은 가회민화박물관이 수집한 부적으로 역시 석류부라 명명되었다. 이를 통해 20세기라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오악진형도는 도교적 신비스러운 의미를 잃고 민간 부적으로 사용되면서 기복(祈福), 건강, 득남을 염원하는 민간 신앙적 의미만 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8〉 남악어부  
21.5×23.5cm (김민기, 1987)



〈그림 19〉 중악어부  
22.5×24cm (김민기, 1987)



〈그림 20〉 석류부  
23×21cm (김민기, 1987)



〈그림 21〉 석류부  
41×41cm  
(가회민화박물관, 2006)

### 3. 구성팔문부(九星八門符) 문양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무기와 갑옷관 큐레이터 라로카는 앞서 요대의 등 쪽에 찍힌 문양 〈그림 22〉을 다섯 개의 기둥으로 인식하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다양한 피해나 불운을 막아주는 의미를 지닌 부적[符籤, fu-lu]이라 하였다. 한편, 근대 한국에서 이 문양은 민간 부적으로서 ‘만사대길소원

46)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2013), 부적디자인소재,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2&cp\\_code=cp0320&index\\_id=cp03202143&content\\_id=cp032021430001&search\\_left\\_menu=7](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2&cp_code=cp0320&index_id=cp03202143&content_id=cp032021430001&search_left_menu=7)

성취부'로 사용되었다.<sup>47)</sup> 김민기는 이 부적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면 만사가 대길하고 집안이 평안하며 원하는 바가 소원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동안 해독되지 않았던 이 문양은 아홉 개의 부적 형상이 모여 다섯 개의 기둥을 만든 '구성팔문부'이다. 부적 각각의 모습은 『무비지(武備志)』권 181, 점도재 편 34에 '九星八門符'라 하여 <그림 23>과 같이 실려 있다. 세 장에 걸쳐 그려져 있는 9개의 부적 그림을 배치 그대로 하나로 모으면 허리띠에 찍혀있는 모습이 된다. 도판의 오른쪽 상단부터 봉휴갑수(蓬休甲水), 임생(任生), 충상진병목(衝傷震丙木), 조두목(輔杜木), 금사(禽死), 주경(柱驚), 심개(心開), 예사(芮死), 영경(英景) 부적 문양을 발견할 수 있다. 2개씩 하나의 기둥을 만들고 있고, 마지막 '영경(英景)' 부적이 길게 하나의 기둥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22〉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면제갑주의 요대 도장 문양  
(연구자 촬영, Feb. 14, 2018)



〈그림 23〉 구성팔문부(九星八門符).  
『무비지』 권 181, 34장, 점도재(占度載).  
(Waseda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무비지』는 명나라 말기인 1621년(天啓元年) 병법가인 모원의(茅元儀)(1594-1640)가 찬술한 방대한 병법 백과사전[軍事類書]이다. 모원의는 청에 의해 쓰러져가는 명나라의 부활을 기도하며 2,000여 부의 책에서 군기(軍器), 병선(兵船), 진형(陣形) 등의 자료를 뽑아 전 240권의 책으로 만들었다.<sup>48)</sup> 국내에 『무비지』가 들어오게 된 것은 1737년(영조 13, 청 건륭 2)에 이루어진 청나라 사행(使行)으로부터였다. 1738년(영조 14) 10월 20일 기해일에 작성된 『영조실록』47권 2번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命刊『武備志』五十卷于平安兵營, 往歲使行覓來者也." 『무비지』 50권을 평안병영(平安兵營)에서 간행하도록 명하였는데, 지난해 사행(使行) 때 구득(求得)해 온 것이라는 기사이다. 영조 초기에는 정국이 불안했다. 1728년(영조 4) 음력 3월 15일, 소수당인 소론당 및 남인당의 강경파들이 영조를 몰아내고자 이인좌의 난이 벌어졌다. 비록 6일 천하로 끝났지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지역 사회의 호응이 있었다. 난의 주요지역은 경상도(영남)이었다. 영조는

47) 김민기 (1987), 『韓國의 符作』, 서울: 보림사.

48) 최형국 (2018), 병서, 조선을 말하다, 서울: 인물과사상사 ; 양재용 · 김성재 · 최명호 (2004), 「武藝圖譜通志의 傳統性에 관한 研究」, 江南大學校 論文集, 43.

반란을 진압했고, 반대파의 상당 부분을 정계에서 숙청하고 국정 장악력을 키워 탕평책을 추진했다.<sup>49)</sup> 『무비지』는 영조가 탕평책을 추진하며 왕권을 강화하던 시기, 군사를 재정비하여 국정 장악력을 키우려는 영조의 의도에 의해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비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무비지』본은 총 39책으로 묶여 남아있는데, 구성팔문부가 들어있는 권177-182가 빠져있다. 국내에서 디지털 열람이 가능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무비지』본이다. 총 48책으로 묶여있고, 이 중 권177-183이 묶여있는 vol.36에서 구성팔문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구성팔문부가 찢혀있는 부분이 오염되어 있다. <그림 23>은 일본 와세다대학교 도서관에서 디지털로 제공하는 『무비지』본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본에서는 구성팔문부가 인쇄된 폐이지가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무비지』는 5부 240권으로 병결평(兵決評) 권1-18(18권), 전략고(戰略考) 권19-51(33권), 진연제(陣練制) 권52-92(41권), 군자승(軍資乘) 권93-147(55권), 점도재(占度載) 권148-240(9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점도재는 점(店)편과 도(度)편으로 나뉘는데, 점편에는 해, 달, 별, 구름, 바람, 우뢰, 오행, 구름, 태을(太乙), 기문(奇門), 육임(六壬)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도편에는 방위와 지리의 형세에 따른 병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구성팔문부는 권181 점도재 34 점(占)편 둔갑경찬(遁甲經纂)에 실려있다. 둔갑경찬이란 기문둔갑(奇門遁甲)에 관련된 경전을 모아 발췌하여 편찬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구성팔문부는 기문둔갑에서 사용되는 부적이다. 기문둔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시공간의 기운을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점술이다.<sup>50)</sup> 기문둔갑은 황제 현원이 치우천왕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 천신(天神)인 구천현녀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술로 특히 병법에 많이 응용되어 국가에서 배우는 것을 금하는 시기도 있었다. 제갈공명, 강태공, 장량, 유백온 등의 군사(軍師)들이 운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수광(1563-1628)이 펴낸 백과사전류의 책인 『지봉유설』에도 둔갑법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부응경〉의 둔갑법은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황제 때에 풍후(황제의 정승)가 지었다고 한다. 문을 나누고 국을 정하여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데로 나아가게 함이 가장 일용에 요긴하다. 그런 까닭에 옛 사람들이 이 것으로써 임기응변하고 적을 제압했다고 한다. 그 법이 10간 가운데서 甲은 항상 숨어 감추기 때문에 둔갑이라고 한다.”

기문둔갑의 기본 개념으로 구궁(九宮), 구성(九星), 팔문(八門)이 있다. 구궁은 3×3의 정사각형 9

49) 김종성 (2016-04-27), [사극으로 역사읽기] SBS 사극 〈대박〉 첫 번째 이야기: 최고통치자가 형을 죽였다. 등돌린 충청 · 호남 · 영남.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03942#cb](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03942#cb)>

50) 김인순 · 조영택 (편) (2016). 『기문둔갑 통변원리』. 서울: 道家.

개로 등분된 도판을 말한다. 이곳에 팔괘의 방위와 그 중앙을 배치하거나, 숫자, 색, 방위, 십이지, 신체부위, 오행, 구성, 팔문 등을 배치한다. 구성은 하늘의 천봉성(天蓬星), 천임성(天任星), 천충성(天衝星), 천보성(天輔星), 천금성(天禽星), 천주성(天柱星), 천심성(天心星), 천예성(天芮星), 천영성(天英星)의 아홉 개의 별모양을 의미한다. 구성은 북두칠성(탐랑·거문·녹존·문곡·염정·무곡·파군)과 좌보성, 우필성을 의미하는데 중국 춘추전국시대 10학파 중 하나인 음양가(陰陽家)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칠성에 보성과 필성을 더한 구성의 관념은 도교적 전통이다(Kim, 2007). 팔문은 휴문(休門), 생문(生門), 상문(傷門), 두문(杜門), 경문(驚門), 개문(開門), 사문(死門), 경문(景門)의 여덟 문으로 천·지·인 삼재(三才)에서 사람의 상태를 설명한다.

『무비지』 구성팔문부 부적〈그림 23〉 하단에 기록된 명칭을 살펴보면, 봉휴(蓬休), 임생(任生), 충상(衝傷), 조두(輔杜), 금사(禽死), 주경(柱驚), 심개(心開), 예사(芮死), 영경(英景)이다. 이는 구성과 팔문이 모두 정위(定位)된 상태를 나타낸다(그림 24). 별은 아홉 개, 문은 여덟 개 이므로, 구궁 중앙에 위치한 천금성은 사문(死門)을 취하여 '禽'과 '死'가 합쳐진 금사(禽死)가 되었다. 금사부는 허리띠의 글자부적 상에도 가장 중앙 상단에 배치되었다.

천보성 天輔星	천영성 天英星	천예성 天芮星
천충성 天衝星	천금성 天禽星	천주성 天柱星
천임성 天任星	천봉성 天蓬星	천심성 天心星

두문 杜門	경문 景門	사문 死門
상문 傷門		경문 驚門
생문 生門	휴문 休門	개문 開門

〈그림 24〉 구성과 팔문이 모두 정위(定位)된 상태  
(김인순·조영택(편) (2016), p.30)

## 5. 논의: 면제갑주에 찍힌 문양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

면제갑주는 그동안 국내에 갑의만 남아 있어 일습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문양의 상징 의미에 대해서 연구가 미진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면제갑주는 전리품으로 또는 해외 무기 수집가의 눈에 들어 몇몇 해외 박물관에 일부 또는 일습으로 소장되어 있다. 2018년 2월,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면제갑주의 갑의, 요대, 투구 일습을 조사하게 되었고, 면제갑주에 찍힌 다양한 문양을 실제로 확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면제갑주 문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

면제갑주에서 해석이 가능했던 첫 문양은 투구와 요대 앞쪽에 시문된 '옴마니반메훔' 문양이었다. 이 문양은 두려운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는 군인들을 불교적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보호해주는 문양이

자 불교적 의미를 넘어 문양이 배치된 모습을 근거로 할 때 도교적 수행법이 담긴 문양이다. ‘옴’으로 시작되는 단전에서 시작된 기가 양기(陽氣)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단전을 중심으로 몸의 네 곳을 진동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정수리에서 ‘훔’이라는 음을 통해 순환했던 기가 뿜어져 나오는 데 이와 같은 문양의 배치를 통해 기(氣)의 원만한 흐름과 통함을 상징하고 있다.

갑의에 찍힌 문양은 ‘오악진형도’라는 도교적 문양이다. 오악진형도가 부적으로 사용될 때, 이는 장수(長壽), 칼, 물, 불로부터의 보호와 큰 부(富)의 획득을 의미한다. ‘옴마니반메훔’ 문양과 ‘오악진형도’ 문양을 통해 면제갑주는 단순히 미신적, 주술적 염원이 담긴 문양이 찍힌 보호 장비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옷에 문양을 자수하거나 찍어 방탄을 위한 부적으로 사용한 가장 가까운 시일의 예를 일제강점기 말기 일본의 천인침(千人針, せんにんぱり) 또는 천인력(千人力, せんにんりき)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51)</sup> 천인침은 천명의 여인들이 한 땀씩 수놓아서, 천인력은 천 명의 남성들로부터 ‘力’이라는 글자를 얻어서 만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징용되는 청년들에게 위문품으로 전달되던 수건이나 머리띠로 이것을 이마나 허리에 두르고 있으면 총알이 비껴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일종의 부적같은 물건이었다. 천인침 또는 천인력에 사용되는 문양으로는 ‘武運長久’라는 글귀나 호축삼재(虎逐三災)라 하여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지켜 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믿어왔던 호랑이 문양이 사용되었다.

조선후기 갑옷에 유교적 상징이 아니라 불교·도교·무속 신앙적 부적 문양이 찍혀 있는 이유에 대해 육군박물관에서 군사 유물을 연구한 전 육군박물관 부관장 김성혜에게 질문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sup>52)</sup>

“전쟁터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운명에 놓인 이들에게 민간에서 널리 알려진 주술적 부적을 시문하여 준 것은 초자연적 신의 힘을 부여하여 심신의 안정과 전승을 빌어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갑옷에 이와 같은 문양이 찍혀있는 것은 사례가 별로 없지만, 사인검(四寅劍)이나 깃발에는 도교적, 주술적 별자리 문양들이 들어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김성혜의 이와 같은 답변은 조선 군대의 깃발을 연구한 김일권의 글과 매우 유사하다.<sup>53)</sup>

“조선 후기에 사용된 군기에 송원대 도교 신화가 녹아있다는 것은 엄격한 성리학 사회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운명에 놓인 이들이 초자연적인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비극적 운명을 피하고 싶었던 간절함을 이해한다면 의문은 어렵지 않게 풀릴 것이다.”

51) 이순우 (2018-03-27), 총알도 막아낸다는 일제의 비밀병기, 센닌바리(千人針), 민족문제연구소. <<https://www.minjok.or.kr/archives/96828>>

52) 전 육군박물관 부관장 김성혜 인터뷰, 2018년 4월 24일.

53) 김일권 (2017), 문화사로 읽는 조선 군대의 깃발 이야기, 원창애 외. 『인정사정, 조선 군대 생활사(고전탐독 01 훈국등록)』,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p. 247-286.

성리학이 엄격했던 조선 사회에 불교 또는 도교의 상징이 녹아있는 이유는 성리학의 성립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된다. 남송 대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성리학의 이론적 형태는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그리고 불가와 선가를 두루 포괄하는 것이었다. 주희를 비롯한 사대부들은 중국의 문화정신에 빼 대가 되는 다양한 문화이론을 자각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였다. 특히 생존과 죽음과 관련하여 사대부 계층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세계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자청하며,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워 일반 서민들의 심리에 부합하였던 도교를 성리학에 융합하였다.<sup>54)</sup>

면제갑주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 문양은 글자 부적인 구성팔문부이다. 구성팔문부는 기문둔갑술의 부적으로 명 말기의 병서인 『무비지』에 실려 있다. 『무비지』는 영조 13년(1737년)에 청나라 사행(使行)을 통해 조선 왕실에 들어오게 되었다. 영조는 그 다음 해인 1738년에 평안도 병영에서 『무비지』를 간행하였다. 영조는 집권 초반에 발생한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면서, 강력한 군권 확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오군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조선 전기 왕 중심의 오위 체제로 돌아가고자 했다.<sup>55)</sup> 청나라 사행에서 영조가 입수한 『무비지』는 영조가 진행했던 군권 확립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영조는 천지인 삼재와 음양오행론 등의 성리학적 사유를 선호한 군주이다.<sup>56)</sup> 영조의 성리학적 사유는 『문헌비고』의 편제 설정에서도 보이며, 『속병장도설』의 진법 설정에서도 동아시아 고대적 우주론인 오행론에 더욱 경도되는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영조 대의 이와 같은 군권을 확립시켜 왕권을 강화하는 분위기는 정조 대까지 이어졌다. 1778년(정조 2년) 정조는 규례를 재정비하면서 장수가 휘하 장수를 소집하는 강력한 명령 깃발인 각 방위의 색에 '북두칠성'이 그려진 초요기(招搖旗)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영·정조 대의 사회 분위기는 무풍(武風)이 짙었으며, 왕권 강화를 위해 군권을 확립하고자 고대의 우주론적인 오행론의 사유방식을 도입하고 있었다. 군사(軍事)에 고대로부터 이어진 도교적 점성술, 음양론을 사용하였고, 심신수련과 건강관리를 위한 도교적 수련법도 받아들였다. 이때 우주의 철학으로 우주 안에서 인간의 위치와 우주와 인간 정신의 윤리적 연관성을 강조하고, 인간과 땅, 그리고 우주를 하나로 만드는 도교적 문양이 개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구성팔문부가 찍힌 갑옷을 떠올려 보았을 때, 우주와 인간이 합체되어 아홉 개의 별과 (인간의 몸에 위치한) 여덟 개의 문이 정위에 놓여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구성팔문부와 같은 부적을 아무나 왕의 허락 없이 옷에 찍을 수 없으며 입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 문양은 조선 말 대원군 집권 시기 서양 함선과 군대의 총포를 막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문양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54) 꺼 자오팡 (1993[1988]), 앞의 글.

55) 최형국 (2018), 앞의 글.

56) 김일권 (2017), 앞의 글, p. 266.

구성팔문부가 국가적 병법을 담은 부적이라면, 단순히 갑옷을 입은 개인의 안위를 간절히 염원하는 문양일 것으로 추정되었던 오악진형도 문양과 음마니반메훔 문양에 대해 재고하게 된다. 갑의와 투구에 찍힌 오악진형도 문양은 신성함을 의미하는 장식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민화나 중국 자료에서는 발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조선의 특유한 성스러운 문양이라 할 수 있다. 갑의와 투구에 찍힌 오악진형도 문양의 배치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나, 『서경』에 등장하는 중국 고대 황제 순(舜)이 태산(泰山)을 중심으로 오악을 순행하며 다스린다는 맥락이나, 조선시대 도성이었던 한양 동쪽 지역의 평평한 지형적 특색으로 인해 동쪽을 강화해야 한다는 풍수지리적 맥락에서 뒤쪽 견갑골 부분에 동악진형 문양 2개를 찍어서 면제갑주에 찍힌 오악진형도의 배치에 대해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번 전시를 위한 면제갑주 복원을 진행하면서 오악진형도 문양을 찍는 순서를 추정하였다. 이 때 오행 상생 순서인 木生火→火生土→土生金→金生水→水生木 순으로 찍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뒤쪽 어깨의 목(木)을 의미하는 동악에서 시작하여 (착용시)앞판 왼쪽의 화(火)를 의미하는 남악, 앞판 오른쪽의 토(土)를 의미하는 중악, 끈으로 엮여 이어지는 뒷판 오른쪽의 금(金)을 상징하는 서악, 뒷판 왼쪽의 수(水)를 상징하는 북악, 다시 어깨 위의 동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찍히게 된다. 따라서 갑의에 찍힌 오악진형도 문양에 상생의 기운이 흐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면제갑주에 찍힌 국가적, 군사적, 우주적인 문양은 갑오개혁 이후 조선 전통의 군사체계가 무너지면서 의미가 사라졌다. 이후 문양은 무속이나 민간 신앙적인 의미에서 면면히 사용되었다. 본 논고를 통해 면제갑주의 문양을 분석, 고찰하여 면제갑주가 처음 제작되었던 시기를 대원군 시기가 아닌 조선 후기 영조 대로 앞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제형은 『근세조선정감』에서 병인양요 · 신미양요 시기 평화기 동안 무기고(武器庫)에 길게 간직되어 왔던 불랑기 대포가 바닷가에 배치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아마도 이 때 면제갑주도 불랑기 대포와 함께 무기고 밖으로 나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이 사실이라면, 면제갑주가 『근세조선정감』에 기록된 것처럼 병인양요 직후 대원군에 의해 개발된 13겹짜리 총탄을 막는 방탄복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면제갑주가 조총이나 소총의 탄환을 막아내는 “세계 최초의 방탄조끼”<sup>57)</sup>가 아니라 “포탄 파편을 막는 장비”라면 면제갑주에 대한 설명은 이치에 맞게 된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유물 조사 결과, 면제갑주는 면포가 30겹 겹쳐진 갑의에 4~5cm 정도로 두텁게 목화솜을 넣은 귀마개용 드림이 있는 투구로 구성된 갑옷이었다. 뜨겁고, 엄청나게 큰

57) 이정호 (2007-02-21), 세계 최초의 방탄조끼 조선군의 「면제배갑」,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91923.html](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91923.html) >; 이성규 (2008-05-29), [이야기 과학 실록 (7)] 사진 속 조선군의 숨옷 미스터리 (하), The Science Times. <<http://www.sciencetimes.co.kr/?news=%EC%82%AC%EC%A7%84-%EC%86%8D-%EC%A1%B0%EC%84%A0%EA%B5%B0%EC%9D%98-%EC%86%9C%EC%98%B7-%EB%AF%B8%EC%8A%A4%ED%84%B0%EB%A6%AC-%ED%95%98>>

소리를 내며, 자칫 폭발할 수도 있는 화기(火器)인 불랑기를 다루는 포병(砲兵) 갑옷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용도라면 왜 면제갑주가 면포로 만들어졌고, 30겹으로 두꺼워야만 했는지도 설명이 가능하다. 면제갑주는 조선 후기 화기(火器) 운용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조선 정예의 포병(砲兵) 갑옷이었음을 추정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제갑주의 문양이 단순한 민간의 주술적, 미신적 용도가 아니라, 조선 후기 성리학적 세계관에 따른 국가적, 군사적, 우주적 문양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면제갑주의 중요성과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아직까지 면제갑주에 대해 풀리지 않은 비밀들이 많다. 면제갑주의 사용 용도, 면제갑주를 착용한 조선 군대와 그 계급, 면제갑주의 원래 명칭, 신미양요 이후 포군(砲軍)의 재정비 기간 동안 면제갑주의 배포 양상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급격한 서구식 근대화로 인해 당시의 일상이자 제도였던 산물들이 전통이 되어버리며 사라져버렸기에, 이를 풀어내려면 흩어진 조각들을 잘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의미가 잊힌 유물을 재조명하는 하나하나의 등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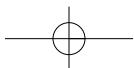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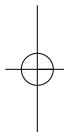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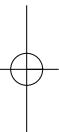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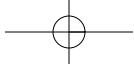
### 참고문헌

- 가회민화박물관 (2006). 『부적 특별전: 영험한 우리네 부적』. 서울: 가회민화박물관.
- 국가등록문화재 아카이브. “제459호 면제갑옷 (綿製甲)”.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79,04590000,11&pageNo=1\\_1\\_1\\_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79,04590000,11&pageNo=1_1_1_0)>
- 국립고궁박물관 (2008). 『수자기(帥字旗): 136년만의 귀환』.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 아카이브. “베갯모 수본”, 창덕 18456-6.  
 <<https://www.gogung.go.kr/searchView.do?pageIndex=1&cultureSeq=701LJE&searchRelicDiv4=&searchGubun=ALL1&searchText=%EB%B2%A0%EA%B0%AF>>
- 국립중앙박물관 (2013). 『한국의 도교 문화: 행복으로 가는 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아카이브. “면제갑옷”.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4531>>
-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아카이브. “다이쇼(大正) 4년도 진열물품 청구서 <삼혈포횡형(三穴砲橫形) 외 194점> 참고 병기(兵機) 목록”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docubj.do?aseq=7&group\\_nm=%EB%8B%A4%EC%9D%B4%EC%87%BC\(%E5%A4%A7%E6%AD%A3\)%204%EB%85%84%EB%8F%84%20%EC%A7%84%EC%97%B4%EB%AC%BC%ED%92%88%20%EC%B2%AD%EA%B5%AC%EC%84%9C&major=%EC%A7%84%EC%97%B4](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docubj.do?aseq=7&group_nm=%EB%8B%A4%EC%9D%B4%EC%87%BC(%E5%A4%A7%E6%AD%A3)%204%EB%85%84%EB%8F%84%20%EC%A7%84%EC%97%B4%EB%AC%BC%ED%92%88%20%EC%B2%AD%EA%B5%AC%EC%84%9C&major=%EC%A7%84%EC%97%B4)>
- 김무생 (1999). 육자진언의 상징 의미, 『密敎學報』, 1(1), pp.1-27.
- 김민기 (1987). 『韓國의 符作』, 서울: 보림사.

- 김인순 · 조영택 (편) (2016). 『기문둔갑 통변원리』, 서울: 道家.
- 김종성 (2016-04-27). [사극으로 역사읽기] SBS 사극 〈대박〉 첫 번째 이야기: 최고통치자가 형을 죽였다, 등돌린 충청 · 호남 · 영남. [오마이뉴스](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03942#cb).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03942#cb](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03942#cb)〉
- 김창호 (2014). “별전(別錢)”,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149>〉
- 꺼 자오꽝 (1993[1988]), 『道敎와 中國文化』(번역 심규호), 서울: 동문선.
- 문화공보국문화재관리국 편 (1987), 『한국의 갑주』, 서울: 문화공보국 문화재관리국.
- 문화재위원회 (2010).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록.
- 민승기 (2004). 『조선의 무기와 갑옷』, 서울: 가람기획.
- 박가영 (2003).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가영 (2019). “해외박물관 소장 조선후기 면갑(綿甲) 유물 분석 –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 『服飾』, 69(4).
- 박가영 · 송미경 (2013). “조선 후기 면갑(綿甲) 유물 분석,” 『服飾』, 63 (4), pp. 158-167.
- 박재광 (2009). 『화염 조선: 전통 비밀병기의 과학적 재발견』, 서울: 글항아리 문학동네.
- 朴趾源 (1780). 『熱河日記』.
- 손영옥 (2016).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 소장 베나도 · 알렌 · 주이 코리안 컬렉션에 대한 고찰, 민속학연구, 38.
- 심경호 (2010-08-02). “[심경호 교수와 함께 읽는 한문고전] ⑩ 포박자(抱朴子) I : 오악진횡도 부적을 넣은 도교 사상의 보고”, 『주간조선』, 2116호.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116100023>〉
- 沈象圭 · 徐榮輔 (1801). 『萬機要覽』.
- 안인실 (20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면갑(綿甲)의 복원제작에 관한 소고. 『학예지』, 21.
- 양재용 · 김성재 · 최명호 (2004). 武藝圖譜通志의 傳統性에 관한 研究, 江南大學校 論文集, 43.
- 원창애 외 (2017). 『인정사정, 조선 군대 생활사(고전탐독 01 훈국등록)』,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윤열수, (2000). 『Korean art book 7 민화 II』, 서울: 예경.
- 이민정 · 박경자 · 안인실 (2019a). 조선후기 면제갑주(綿製甲冑) 문양에 대한 연구 I - 문양의 분석과 복원을 중심으로 –, 『服飾』, 69 (6).
- 이민정 · 박경자 · 안인실 (2019b). 조선후기 면제갑주(綿製甲冑) 문양에 대한 연구 II - 문양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 『服飾』, 69 (7).
- 이성규 (2008-05-29). [이야기 과학 실록 (7)] 사진 속 조선군의 솜옷 미스터리 (하), The Science Times.  
〈<http://www.sciencetimes.co.kr/?news=%EC%82%AC%EC%A7%84-%EC%86%8D-%EC%A1% B0%EC%84%A0%EA%B5%B0%EC%9D%98-%EC%86%9C%EC%98%B7-%EB%AF%B8%>〉

- EC%8A%A4%ED%84%B0%EB%A6%AC-%ED%95%98〉
- 이정호 (2007-02-21). 세계 최초의 방탄조끼 조선군의 '면제배갑',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91923.html](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91923.html)〉
- 전인초 (2008). 오악의 신화전설, 『인문과학』 88.
- “주차군(駐劄軍)”. 실록 위기.〈[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A3%BC%EC%B0%A8%EA%B5%B0\(%E9%A7%90%E7%AE%9A%E8%BB%8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A3%BC%EC%B0%A8%EA%B5%B0(%E9%A7%90%E7%AE%9A%E8%BB%8D))〉
- 최형국 (2018). 『병서, 조선을 말하다』. 서울: 인물과사상사.
- 한국국제문화협회 편 (1989). 『미국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서울: 한국국제문화협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부적디자인소재.”〈[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2&cp\\_code=cp0320&index\\_id=cp03202143&content\\_id=cp032021430001&search\\_left\\_menu=7](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2&cp_code=cp0320&index_id=cp03202143&content_id=cp032021430001&search_left_menu=7)〉
- 『性命圭旨』.
- 茅元儀 (n.d.) 『武備志』.
- 黎靖德 (1270). 『朱子語類』.
-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Archive. *Helmet*.〈[https://anthro.amnh.org/anthropology/databases/common/image\\_dup.cfm?catno=70%2E0%2F%203544](https://anthro.amnh.org/anthropology/databases/common/image_dup.cfm?catno=70%2E0%2F%203544)〉
- Chung, Minh (2011). *Korean Treasures: Rare Books, Manuscripts and Artefacts in the Bodleian Libraries and Museums of Oxford University*. Oxford: Bodleian Library, University of Oxford. pp. 118-119.
- Duvernay, Thomas (2010). *Shinmiyangyo: 1871 US-Korea Conflict*.〈<http://www.shinmiyangyo.org/old/>〉
- Duvernay, Thomas (2020). *Sinmiyangyo: The 1871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eoul: Seoul Selection.
- Gallimard & Musée de l' Armée (2017). *Dans la peau d'un soldat: De la Rome antique à nos jours*, Paris: Gallimard · Musée de l' Armée.
- Hough, Walter (1893). *The Bernadou, Allen and Jouy Corean collection in the U.S. National Museum*, Washion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https://archive.org/details/bernadouallenjou00houg>〉
- Jackowicz, Steve (2013). Om Mani Padme Hum in Daoist Revision, *Journal of Daoist Studies* 6, University of Hawai'i Press.
-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6). *The Gods of War: Sacred Imagery and the Decoration of Arms and Armor*.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 Pitt Rivers Museum Collection. *Footsoldier's padded armour* (1884.31.33).〈<http://web.prm.ox.ac.uk/>〉

- 
- weapons/index.php/tour-by-region/asia/asia/arms-and-armour-asia-76/index.html>
- Robinson, H. Russell (1965). *Oriental Armour (Dover Military History, Weapons, Armor)* [Kindle DX version]. Retrieved from Amazon.com 2371/5372
- Smithsonian Institute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Archive. *Ancient Korean Armor (Kabot)*. <[http://collections.si.edu/search/detail/edanmdm:nmnhanthropology\\_8334972?q=armor&fq=CSILP\\_5&fq=data\\_source%3A%22NMNH++Anthropology+Dept.%22&fq=place%3A%22Korea%22&record=2&hlterm=armor&inline=true](http://collections.si.edu/search/detail/edanmdm:nmnhanthropology_8334972?q=armor&fq=CSILP_5&fq=data_source%3A%22NMNH++Anthropology+Dept.%22&fq=place%3A%22Korea%22&record=2&hlterm=armor&inline=true)>
- Stone, George Cameron (1999[1934]). *A Glossary of the Construction, Decoration and Use of Arms and Armor: in All Countries and in All Times* (Dover Military History, Weapons, Armor). NY: Dover Publications.
- Transylvania University Library Archive. *Helmet*. <<https://transy.pastperfectonline.com/webobject/F4EE929B-9CAE-4196-939A-299137121115>>
- Waseda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武備志 61-62. [http://archive.wul.waseda.ac.jp/koshō/ke05/ke05\\_00061/ke05\\_00061\\_0062/ke05\\_00061\\_0062.pdf](http://archive.wul.waseda.ac.jp/koshō/ke05/ke05_00061/ke05_00061_0062/ke05_00061_0062.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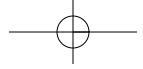
2020 가을 기획전

## 조선의 군사복식 구국의 얼을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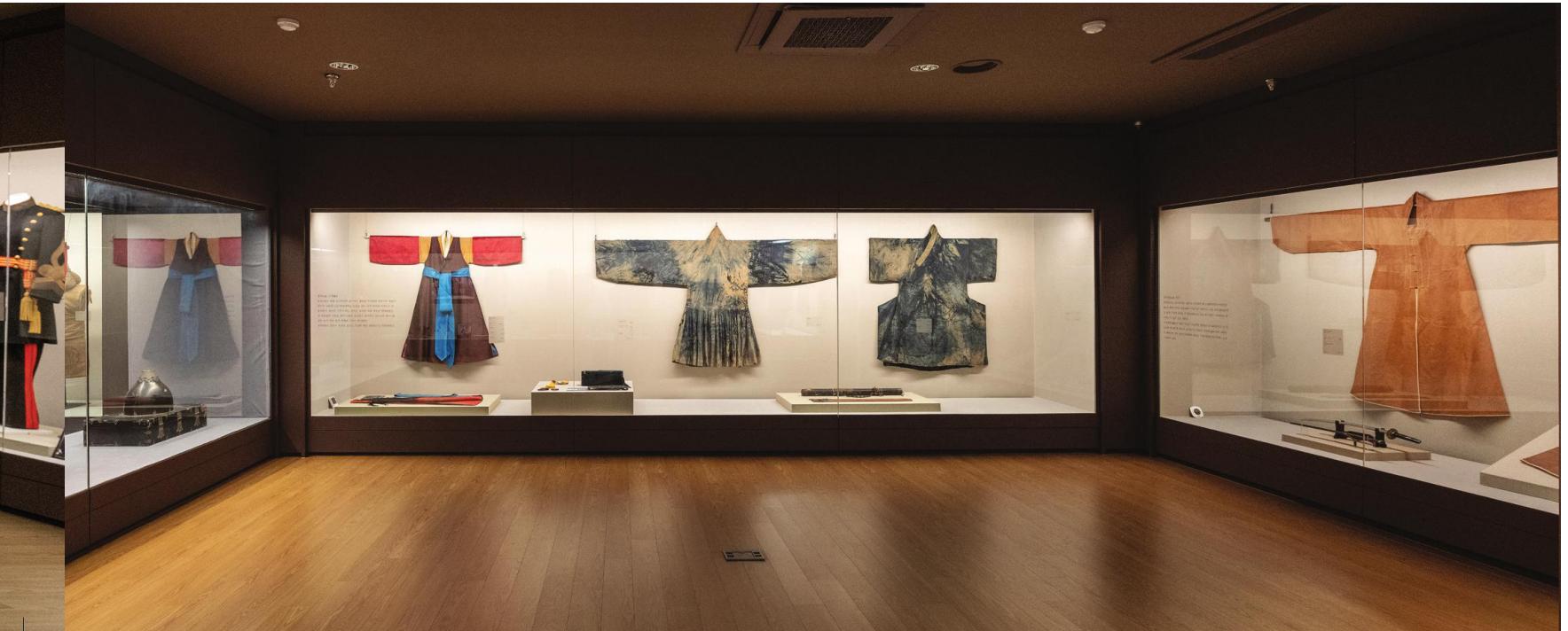
2020. 10. 22 - 2021. 2. 27

‘조선의 군사복식, 구국의 얼을 담다’ 전시회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서울대학교박물관 · 연세대학교박물관  
강화전쟁박물관 · 경인미술관 · 아트앤크리에이티브 · 장준하기념사업회  
스튜디오 드래곤 · 양준자(50회) · 석한남 · 권병훈 · 윤종수 · 서태식







## 조선의 군사복식, 구국의 얼을 담다

2020. 10. 22 ~ 2021. 2. 27

전시장소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주최 경운회  
주관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전시주관 관장 장경수  
책임기획 부관장 박경자  
기획진행 학예사 박상진 연구원 문희원  
도록편집 배방훈 이계호 호원숙 김혜정  
진행 설영자 손창옥 이경희 이숙명 전명애 김용정 이미영 임연옥 배현령  
이정희 한소영 김명희 이영희 전경숙 김귀란 김혜진 오현옥 정순은  
지미영 강영서 김현순 이혜원 공희숙 김선희 이경순 최의려 민승옥  
최은순 김종민 이수미 강진선 김규인  
사진 서현강  
도록디자인·제작 디자인아이즈  
발행인 장경수  
발행처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06324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9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Tel. 02-3463-1336 Fax. 02-3463-1331  
[www.kwmuseum.org](http://www.kwmuseum.org)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은 경운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 비매품



본 도록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